

'09년 10월 농식품 해외시장 동향

2009. 11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식품마케팅처 수출정보팀

- 목 차 -

1. 기획조사

- 일본의 곳감 및 곳감 가공품 시장동향 ----- 2
- 미국 FDA 한국식품 역류 동향----- 17
- 미국 LA 한인교포시장 유통 소금제품조사----- 28

2. 해외시장동향

- 일본----- 31
- 중국----- 46
- 미국----- 67
- E U----- 90



1. 생산동향

가. 감의 개요

- 명 칭 : Diospyros kaki(학명), Persimmon(영명)
カキ/柿(일명) / 干し柿(곱감) / 熟柿(홍시)
- HS코드 : 감(신선) : 0810.90-299
곱감(건조) : 0813.40-022
- 관세율 : 감(신선)은 수출입 자유화 품목으로 WTO 협정 6%이며, 곱감(건조)은 9%임.

나. 재배지

- 감은 동아시아 원산으로 일본에서는 긴 세월을 걸쳐 가장 생산량이 많은 과실로 현재로는 밀감, 사과, 배 다음에 이어 일본국내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음.
- 감은 온난(溫暖)·다우(多雨)기후에 적합하며, 다른 과실에 비해 농약살포횟수가 적으며, 예부터 가정의 정원주의에 많이 심어져 전국적으로 지방품종이 많이 발달했음.
- 일본국내에서 가장 곱감재배가 많은 곳은 후쿠시마현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나가노현, 야마나시현의 순이며, 중국산 곱감도 곱감유통의 10%정도 차지하게 되었음.
- 일본에서 곱감은 설 용품으로 수요가 많으며, 과자 대용으로 노인층에게 인기가 높음.

다. 품종구분

- 꽃감전용품종으로 甲州百目, 堂上蜂屋, 葉隠 등이 있음. 지방품종으로는 田倉(오사카), 市田(나가노), 三社(도야마), 最勝(이시카와), 大和百目(야마나시) 등이 있음.



- 꽃감은 상품(형태)방법에 의해 枯露柿, 串柿, あんぽ柿, 卷柿, つと柿, 甘干し, 生干し 등 명칭이 달라짐.
- * 枯露柿-수분이 생감의 25~30%정도가 될 때까지 건조시킨 것. 이시카와현(石川縣)의 노토(能登)지방에서 재배가 왕성하고 특히, 시가마치(志賀町)의 枯露柿는 특산품.
- * あんぽ柿-수분이 50%정도의 꽃감. 枯露柿보다 연한 것이 특징으로 반건조의 이미지. 도야마현(富山縣)산이 유명함.
- * 串柿-串柿는 설날 찰떡에 넣는 縁起物. 어디까지나 장식용이며 매우 단단하므로 실제로 먹는 사람은 적음.

枯露柿(고로가키)	串柿(쿠시가키)	あんぼ柿(안포가키)
		
		
巻柿(마키가키)	甘干(아마보시)	生干(나마보시)
		
		

○ 건조방법은 껍질을 벗겨 천일(天日)건조, 화력(火力)건조 및 양자의 절충법이 있음.

<건조방법의 예>

- * 천일건조-처마 밑에 달아 일광으로 말리는 전통적인 방법.
- * 화력건조-실내에 달아 화력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균일하고 단기간에 가능함.
- * 원적외선건조-최신기술로 최근 이 방법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늘고 있음. 원적외선을 사용하면 대단히 색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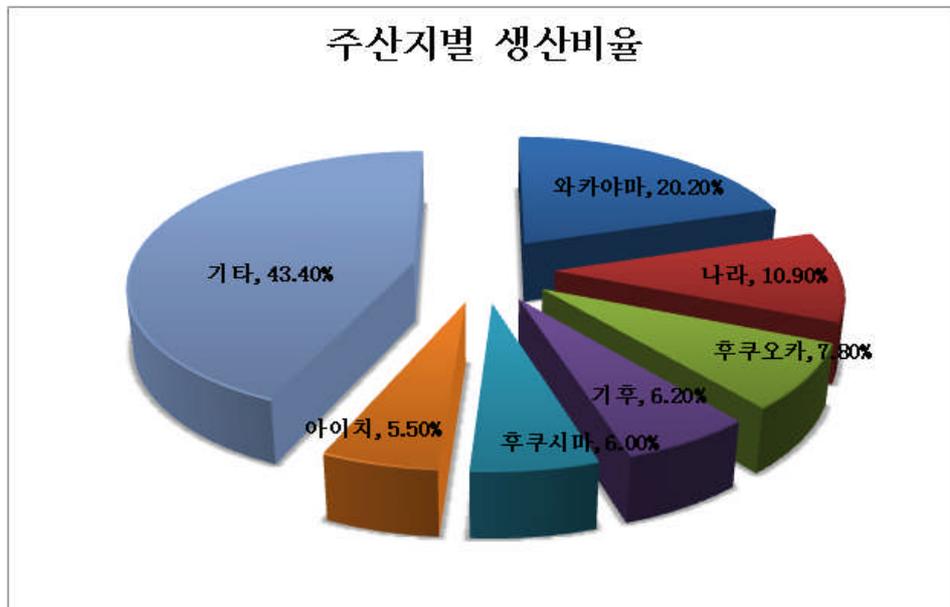
라. 재배동향

- 일본의 감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08년 결과수면적은 23,000ha로 전년에 비해 200ha(1%) 감소했음.
- '08년 감의 생산량은 266,600톤으로 전년대비 21,800톤(8.9%) 증가를 나타냈음.

< 일본 감의 연도별 생산동향 >

연도	결과수면적 (ha)	10a당 수확량(kg)	생산량 (톤)	출하량 (톤)
'04	23,800	976	232,500	185,000
'05	23,700	1,210	285,400	230,300
'06	23,500	990	232,700	186,600
'07	23,200	1,060	244,800	196,000
'08	23,000	1,160	266,600	213,400

자료) 농림수산성 통계부



- '08년 주산지별 생산량 비율을 보면, 와카야마현이 전국의 약 20.2%, 나라현이 10.9%,

후쿠오카현이 7.8%, 기후현이 6.2% 후쿠시마현이 6.0%, 아이치현이 5.5%를 나타내어 이 6개의 현에서 전국의 56.6%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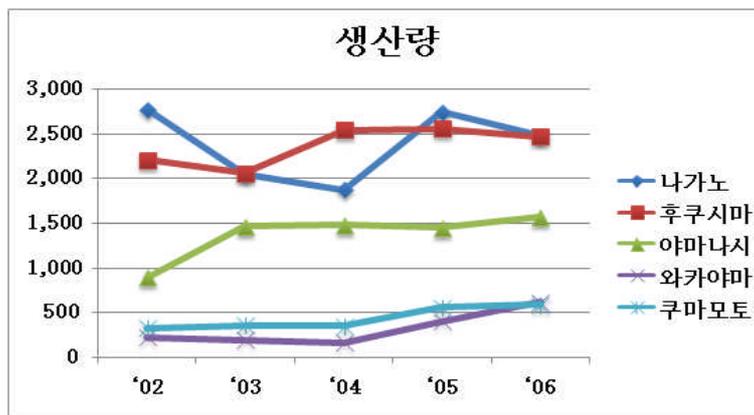
< '08년 일본 감의 주산지 생산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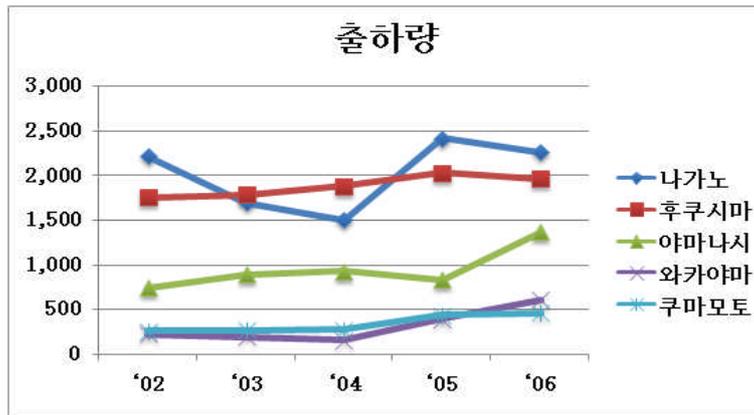
주산지	결과수면적 (ha)	10a당 수확량 (kg)	생산량 (톤)	출하량 (톤)	전년대비(%)			
					결과수 면적	10a당 수확량	생산량	출하량
전 국	23,000	1,160	266,600	213,400	99	109	109	109
와카야마	2,850	1,890	53,900	48,500	99	104	104	104
나라	1,860	1,570	29,200	26,700	100	104	104	104
후쿠오카	2,030	1,030	20,900	18,900	99	104	102	102
기후	1,410	1,180	16,600	14,600	97	116	112	113
후쿠시마	1,280	1,260	16,100	13,500	99	120	128	130
아이치	1,280	1,150	14,700	11,700	101	115	116	115

자료) 농림수산성 통계부

마. 꽃감의 생산동향

- '06년 꽃감 전체 생산량은 9,700톤으로 전년(10,272톤)대비 94.4% (572톤) 감소.
- '06년 상위 주산지는 나가노(2,478톤), 후쿠시마(2,470톤), 야마나시(1,567톤)의 순이며 이들 3 주산지로부터 전체의 63.4%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음.





< 낫감의 연도별 생산량 >

(단위:톤)

구분	'02	'03	'04	'05	'06
나가노	2,770	2,042	1,872	2,744	2,478
후쿠시마	2,206	2,061	2,551	2,561	2,470
야마나시	894	1,461	1,482	1,453	1,567
와카야마	222	195	161	399	614
쿠마모토	328	358	352	561	587
전체	8,875	8,715	8,529	10,272	9,700

< 낫감의 연도별 출하량 >

(단위:톤)

구분	'02	'03	'04	'05	'06
나가노	2,217	1,703	1,503	2,422	2,259
후쿠시마	1,754	1,783	1,881	2,035	1,967
야마나시	742	891	932	835	1,372
와카야마	222	195	161	399	614
쿠마모토	264	267	278	443	464
전체	7,484	6,774	6,119	8,013	8,423

자료) 총무성 통계국 통계센터

2. 소비 및 유통동향

가. 소비동향

- 꽃감은 상품(형태)방법에 의해 枯露柿, 串柿, あんぽ柿, 卷柿, つと柿, 甘干し, 生干し 등 명칭이 달라져 사용용도도 다르며, 수분 25~30%의 것을 枯露柿(고로꽃감), 50%의 것을 あんぽ柿(안포꽃감)으로 칭함. 유통시기는 12월~1월, 월말의 선물용, 신정의 상품으로서 수요가 있음.

< 꽃감을 이용한 가공식품 >

꽃감칩	젤리	밤을 넣은 꽃감	꽃감과 무 감초절임
			
화과자	파운드 케익	양갱	꽃감과 버터 다시마 말이
			

- 꽃감은 설날에 길조를 비는 설 용품으로 12월에서 1월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간식, 과자대용 등 다양하게 즐기고 있음.



< 일본산 꽃감 >



< 중국산 꽃감 >

나. 유통동향

- 오사카시중앙도매시장 동부시장(2007.8.10현재) 유통되고 있는 감의 규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품종	중량	2L	L	M
富有				
(와카야마)	7.5kg	24과	28과	32과
(나 라)	10kg	36과	42과	48과
平核無				
(와카야마)	7.5kg	24과	28과	32과
(나 라)	10kg	36과	42과	48과
市田꽃감				
(나가노)	200g(PC)	7~9개	10~12개	
압포꽃감				
(후쿠시마)	250g(트레이)			
아타고꽃감				
(후쿠시마)	2개들이 봉지			
요코노꽃감				
(에히메)	10kg(벌크)			
중국산꽃감				
	5kg(벌크)	3L 125개	2L 150개	L 175개



<이치다(市田)꽃감>

<안포꽃감>

<중국산 청도(靑島)감>

다. 전국도매시장 월별 도매수량 및 단가

- '08년도 전국도매시장의 꽃감 도매수량은 1,496톤으로 전년대비(1,598톤) 6.4%감소 하였으며, 단가는 1,447엔으로 전년대비(1,414엔) 102.3% 증가하였음.

(단위:톤,엔)

구분	수량	단가
합계	1,496	1,447
1월	459	1,388
2월	180	1,364
3월	45	1,348
4월	5	784
5월	0	550
6월	0	1,729
7월	0	1,471
8월	3	1,754
9월	0	1,943
10월	17	1,675
11월	102	1,279
12월	685	1,538

자료) 도쿄도중앙도매시장 통계정보

라. 도쿄도중앙도매시장 연도별 도매수량 및 단가

- 도쿄도중앙도매시장의 감의 도매수량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08년에는 전년대비 112.1%로 증가를 나타냈음.
- 연도별 kg당 단가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08년에는 222엔으로 전년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쿄도중앙도매시장 연도별, 월별 도매수량 및 단가 >

연도별	도매수량(톤)	단가(엔/kg)
`06	21,995	269
`07	22,483	257
`08	25,219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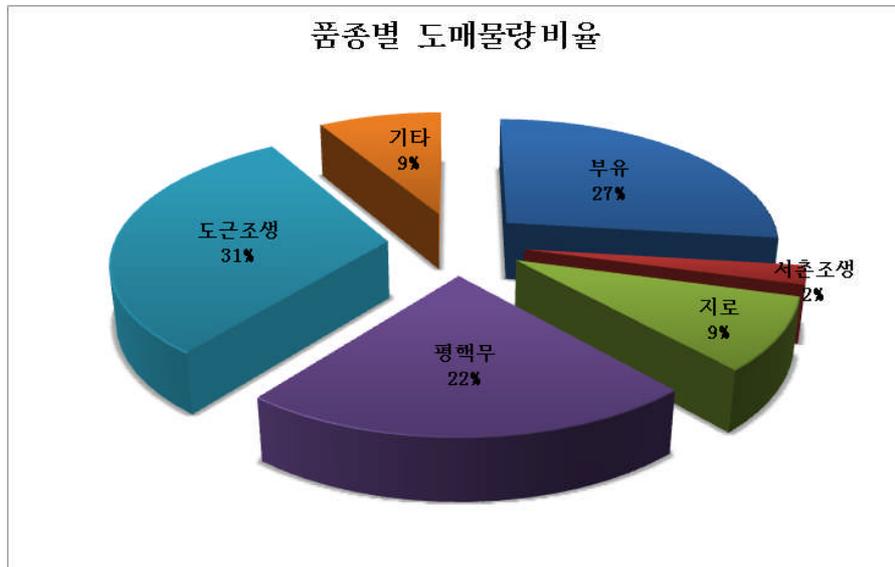
월별	도매수량(톤)			단가(엔/kg)		
	`06	`07	`08	`06	`07	`08
1월	928	368	678	192	405	262
2월	401	71	269	250	442	322
3월	108	0	9	247	488	271
4월	5	-	7	310	-	417
5월	-	-	-	-	-	-
6월	-	0	-	-	1,460	-
7월	2	10	6	1,475	1,207	1,311
8월	33	48	41	910	874	864
9월	1,876	1,323	2,351	341	401	320
10월	9,102	9,165	10,048	245	253	219
11월	7,275	8,170	8,751	266	236	187
12월	2,271	3,328	3,060	336	235	232

자료) 농림수산성 통계부

마. 품종별 도매시장 물량동향

- 전국 도매시장의 '08년도 품종별 도매물량은 도근조생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유, 평핵무, 지로, 서촌조생 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통시기는 대부분 10월~익년 4월까지 대부분이 유통되고 있음.

< '08년 감의 전국도매시장 품종별 도매물량 >



(단위:톤)

구분/품종	부유	서촌조생	지로	평핵무	도근조생	기타
1월	6,795	599	2,289	5,624	7,791	2,161
2월	550	-	-	2	-	125
3월	264	-	-	0	-	4
4월	47	-	-	1	-	5
5월	7	-	-	-	-	0
6월	-	-	-	-	-	-
7월	25	0	-	-	5	1
8월	-	3	0	-	36	0
9월	-	384	10	117	1,742	98
10월	658	211	861	1,758	5,678	883
11월	2,961	1	1,378	3,498	319	591
12월	2,307	-	41	248	10	453

자료) 도쿄도중앙도매시장 통계정보

3. 수입동향

- 꽃감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09년 8월 누계 꽃감 수입량은 584톤이며, 08년 꽃감 수입량은 882톤으로 전년대비(2378톤) 37% 감소되었음.
- 중국산 꽃감은 상자에 가득히 채워진 채로 수입되어 일본에서 팩에 옮겨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국가별 건조과실 수입현황 >

(단위 : 톤, 백만엔)

구분	2006		2007		20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중국	3,567	1,081	3,213	953	1,648	567
독일	37	173	36	200	37	216
칠레	95	44	148	73	81	53
미국	57	117	23	68	18	41
계	3,796	1,457	3,506	1,340	1,845	918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

< 품목별 수입현황 >

품명	수량 (톤)	금액 (십만엔)
합계	1845	918
건조베리	308	749
건조과실	108	82
꽃감	882	203
건조과실(기타)	921	632

자료)재무성 무역통계

4. 관세동향

가. 관세제도

-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을 수입할 때에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일부의 국가에서 특정과실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므로 수입 통관에는 각각의 절차에 의해 합격증 및 절차 확인을 받은 「식품 등 수입신청서」를 취득하여 첨부하는 것이 필요함.
- 식물방역에는 모든 식물 및 식물생산물이 대상이 되나 다음과 같은 것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생과실을 소금, 설탕, 아황산, 초산, 알코올 등에 절인 것
 - 안즈, 무화과나무, 감, 자두, 배, 대추,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이야, 포도, 망고, 복숭아 등의 건조과실
- 수입에 있어서 수출국정부기관에서 발행되고 또한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았다고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검사 신청할 때 제출함.
- 일본에 미발생의 병해충이 부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2에서 정한 대상병해충이 발생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서는 대상 식물명을 들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조건부 수입해금 생과일
식품방역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의 수입금지 과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건부 수입 및 해금 조건에 의해 수입이 인정되는 것이 있음. 사례로서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망고, 파파이야, 멜론, 오렌지, 레몬, 그레이프후르츠 등이 있어 미국, 뉴질랜드로부터의 사과도 해금되었음. 향후에는 대상품목의 확대의 경향에 있어 수입 계획에 즈음해 사전에 식물방역소에 상담하여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그 요건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있는 것으로서
 - 1) 생산지 지정(방제를 하고 있는 것)
 - 2) 수출국에 있어서의 소독, 검사가 적합하게 실시
 - 3) 일본으로부터 파견된 식물방역관이 현지에서 입회
 - 4) 포장, 수송 방법의 한정 및 병해충 오염 방지 조치
 - 5) 합격증의 교부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교부되며, 병해충이 부착하고 있을 때에는 소독한 후에 합격증을 교부함.

5. 한국산 수출 경쟁력

- 소비자들의 과실소비가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수입개방에 따라 열대성 과일이 많이 수입되고 있어 이들 과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양질과 생산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기계화 및 주산단지 공동작업화 등에 의해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함.
- 가공적성이 높은 껌은 감의 품종을 늘려 껌 수출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전통 가공 식품을 개발하여 산업화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일본에서 껌의 수요는 설 용품과 선물수요, 과자 대응으로 소비가 가장 많은 12월과 1월, 2월에 역시 중국산이 일본산의 후쿠시마, 나가노 다음으로 물량이 많게 유통되고 있어 일본산과 중국산과의 경합이 예상되는 바, 한국산의 품질향상으로 중국산과의 차별화가 시급한 실정임.
- 유통가격 또한 일본산 도매시장 평균가격과 중국산 도매시장 평균가격 및 수입가격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의 적정 가격설정 및 안정공급체제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수출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I. FDA 동향

1. 한국식품 역류관련 개요

가. 일반현황

- 수입관리·통제제도의 하나로서 미 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식·의약·화장품 등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을 통제
- 외국식품의 대미수출 시에는 FDA에 반드시 통관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통과치 못하는 경우 역류처리
- FDA 역류(Notice of FDA Action)시 명시된 기간 내 개선·보완 또는 이상 없음을 증명하면 역류해제 가능

나. 연도별 현황

- 한국산 농수산물식품의 경우 2001년까지는 매년 역류건수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산 식품의 위생문제가 이슈화되며 FDA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347건 기록
- ('97)212건 → ('99)331 → ('01)663 → ('02)408 → ('03)357 → ('04)400 → ('05)213 → ('06)113 → ('07)135 → ('08)347

○ 2008년도 식품별 · 월별 거부상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품목/총식품건수
면								1					1	0%
스낵	2			6	1	2	1	10	3			5	30	9%
수산물		1	2	12	10	6	8	57	7	6	2	4	115	33%
과실				1		2							3	1%
채소연관식품			3				4	15	4	1	1		28	8%
음료	4	2	9	16	2	5	10	9	4	2		2	65	19%
캔디	2		3	2	5	3	1	1	7	5	2	9	40	12%
소스			7				1	9	3	1		7	28	8%
스프								1		2			3	1%
한방재료(인삼등)			4		3			7	1	12			27	8%
기타										2	2	3	7	1%
식품억류건수	8	3	28	37	21	18	25	110	29	31	7	30	347	99%
총억류건수	19	21	51	61	27	31	54	124	40	44	18	48	538	
식품류/총억류수	42%	14%	55%	61%	78%	58%	46%	89%	73%	70%	39%	63%	64%	

○ 2009년도 식품별 · 월별 거부상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품목/총식품건수
면			1	1				1	1				4	2%
스낵(과자류포함)	2	5	3	1	12		1						24	12%
수산물	2	3	15	9	4	3	5	1	5				47	23%
과실									2				2	1%
채소연관식품			2	1		2		1					6	3%
음료	4	4	17		4	1	5	1	11				47	23%
캔디	5	3	16	1	3	5	1		4				38	18%
소스		5	4	1	1		3		1				15	7%
스프				5					1				6	3%
한방재료(인삼등)				1	3								4	2%
축산물 (계란등)	2												2	1%
기타	2	2	1		3		3	1					12	6%
식품억류건수	17	22	59	20	30	11	18	5	25				207	100%
총억류건수	34	90	66	50	40	31	37	27	41				416	
식품류/총억류수	50%	24%	89%	40%	75%	35%	49%	19%	61%				50%	

다. 전월 (9월) 현황 : 식품 역류 건수 25건

- 특이사항: 8월에 비해 역류식품 건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이는 무허가 유해 색소를 포함한 음료와 캔디류가 많았기 때문.
- 거부식품 : 음료류 (11건, 3업체, 44%), 수산물 (5건, 2업체, 20%), 캔디류 (4건, 2업체, 16%), 과실류 (2건, 2업체, 8%)
기타 (3건, 3업체, 12%),
- 거부사유 : 유해색소포함 (33%), 살모넬라 검출 (18%),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 (14%), 잘못된 라벨링 (14%), 기타 (안전치 않은 농약포함, 부패/오염 등 21%)

라. 역류감소를 위한 대처방안

- FDA 의 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CFSAN) 은 미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수산물,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 실시
- 대 미국 수출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위해서는 수출 농수산물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부터 미국통관까지의 매 과정에 필요한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자주 발생하는 식품에 대한 위반사항
 - FCE No. 부재
 - 저산성식품의 공정과정 (SID No.) 미등록
 - 무허가 색소
 - 불결한 제조
 - 승인도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 영양표 부적합
 - 불법 라벨링 등

- 저산성식품(LACF: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 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은 미국선적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 필요
 - 밀봉포장식품 제조시설 등록(FCE Number :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 를 FDA Form 2541 을 통하여 등록을 하여 FCE Number 취득
 - 공정과정등록(SID Number: Submission Identifier Number)를 FDA Form 2541a(Aseptic packaging 일 경우 FDA Form 2541c) 을 통하여 Process Filing 을 하면 FDA 검토 후 SID Number 부여
- 필수 표기 사항
 - 거의 모든 식품에 라벨은 의무사항이며 제품명, 영양 표시, 제조유통업체, 성분표시, 중량, 유통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육류, 과일, 채소는 자발적으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식품포장에는 의약품처럼 일정한 건강효과나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선전 문구는 허위, 과대광고로 간주되므로 주의 하여야 함
- 미국 수출용은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물과 다른 영어표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표기는 서류통관이 될 상품도 정밀검사로 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 **지난 2008년 8월의 경우 전체 통관보류건수 110건 중 46%가 영어라벨이 없다는 사유로 보류 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함**
- 통관 시 라벨문제로 보류되었을 경우 라벨을 교정하여 재작업 할 수는 있으나, 재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보관비 등 추가비용 발생가능
-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색소 및 첨가물은 FDA 의 승인 및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색소는 FDA 가 인증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마. 식품관련 주요 거부 코드 및 설명

BACTERIA : 건강에 해로운 독성유해물질 함유
COLOR LBLG : 인공색소라벨링 없음
EXCESS SUL: excessive sulfites (아황산염이 과잉으로 함유)
FALSE : 잘못된 라벨링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라벨링)
FILTHY : 오염/부패 물질 함유
IMPTRHACCP : HACCP 불이행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
INCONSPICU : 명확하지 않은 라벨링
INSANITARY : 오염/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
LABELING : 잘못된 라벨링 (표시기준위반)
LACKS FIRM : 제조업자 정보 없음
LACKS N/C : 무게 및 크기를 표시한 라벨이 없음
LIST INGRE : 사용된 재료 라벨 없음
LISTERIA : 리스테리아 검출
MFR INSAN :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NEEDS FCE : 미등록 약산성 식품
NO ENGLISH : 영어라벨 없음
NO PROCESS : 공정과정자료 없음
NUTRIT LBL : 영양분석표 라벨 없음
PESTICIDES : 안전하지 않은 농약 검출
POISONOUS : 독성물질검출
SALMONELLA : 살모넬라 검출
UNSAFE ADD : 유해 식품첨가물 함유
UNSAFE COL : 유해색소 포함
WRONG IDEN : 식품이름을 허위기재
YELLOW #5 : '황색색소 5번' 검출

2. 9월 한국산식품 FDA 거부 리스트

○ 식품 거부 건수 : 25건 (총 거부건수 :41건)

일 자	제 품 명	거부사유
9/3	dried sliced jujube	안전치 않은 농약검출
9/4	soft drink (4)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 (4)
9/8	carbonated drink (5)	유해색소포함 (5)
9/14	Instant Noodle	안전치 않은 육류재료사용 사용된 재료 라벨 없음
9/14	aloe vera juice	부패/오염된 물질 함유
9/14	instant clam soup	공정과정자료 미제출
9/14	flavored candy (3)	유해색소포함 (3)
9/14	Sliced dried dates	안전치 않은 농약사용
9/15	frozen slice file fish	살모넬라 검출
9/15	candy	유해색소포함
9/15	frozen filefish (3)	살모넬라검출 (3)
9/17	soft drink	영어라벨없음, 영양분석표없음
9/17	dried seaweed in pack	살모넬라검출
9/22	soybean paste	제조업자 정보없음 트랜스지방(Transfat) 정보없음

3. 최근 FDA 통관 시 유의할 사항

- 중국산 식품 및 생필품의 안전성 및 식품위생문제와 함께 FDA는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표기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수출 농식품 안전성관리를 강화가 시급함
 -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에 대한 치료, 처방 등과 같은 허위 과장 표기는 할 수 없음
 - 작년 중국산멜라민 파동이후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된 가운데 최근 한국산 제품 중 일부라면, 생식 등에서 멜라민 유사 성분 발견으로 통관거부 사례발생
 - 동여파로 한국산은 중국산과 같은 수준의 정밀통관검사 지속 추진 중으로 수입업체 부담가중

- 최근에 자주 통관보류가 되는 주요 사례
 - 저산성식품(LACF)임에도 SID Number 없이 수출하여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
 - 통관 편이를 위해 식품을 사료용 등으로 허위기재하여 통관 보류 사례(예: 식용 번데기 통조림을 사료용으로 허위 표기)
 - 식품의 명칭을 조사관이 알 수 없게 표기하여 서류통관 될 것을 정밀검사를 거치는 사례(예: 강냉이를 Pop Corn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Korean Cookie 나 Korean Snack으로 표기하여 정밀 검사)
 -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Supplement Facts를 표기하여야 하나 식품과 같이 Nutrition Facts 표기한 경우
 - 대기업 제품의 경우에도 국내용 한글 포장으로 수출하거나, 색소를 사용하고도 표기하지 않는 경우(옥수수 수염차, 알로에 음료)

< 대 책 >

- 수출업계의 의식 개혁 : 중국산과 차별화하여 수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이나, 실패 할 경우 중국산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외면 불가피
- FDA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 업계 및 관계자 교육실시
- 한국 식품 표준 용어 및 표기 집 발간
- 미국 수출업계 대상 식품통관 사례조사 및 사례 발간
- 최근의 멜라민검사강화에 대응, 미국수출 제품에 대한 미국 FDA의 멜라민(멜

라민유사성분 포함) 제품검사방법에 준하는 검사기준적용 국내 사전검사 실시요망 및 제조 및 수출업체에 대한 미국식품안전기준 준수 계몽 및 홍보강화 필요 최근 주류마켓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알로에 음료의 경우 당분표시와 관련하여 "No Sugar Added" "Sugar Free"를 표기한 제품 중 당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당분의 성분을 줄여 표기하는 경우 통관보류 또는 소비자로부터 공익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지 규정 준수요망

4. FDA 수산물 관련 안전 프로그램

- 미국은 고기, 가금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의 안전 프로그램은 FDA가 책임지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FDA에서 의무적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산물관련 법규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발행하는데 이러한 법규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수산물 관련 법규의 토대로 사용되고 있음.
- 해외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경우, 미국 FDA가 정해놓은 안전관리기준인 HACCP이나 이와 동일한 안전시스템을 설치해야만 수입이 가능함.

5. FDA 관련뉴스

□ 멕시코만 생굴 못 판다

연방정부가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기간 내 멕시코만에서 수확하는 생굴 판매의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수온이 따듯한 멕시코만 산 생굴에 기생하는 '비브리오' 박테리아로 미국에서 매년 15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살균 처리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11년부터 수온이 올라가는 4~10월 수확된 생굴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들 사망자의 대부분은 간이나 신장질환자, 암환자, 당뇨병환자 또는 AIDS 감염자등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판금 조치에서 멕시코만 이외의

생굴은 제외된다.

FDA는 지난 2003년부터 살균처리 하지 않은 멕시코만산 생굴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지 조치 이전의 캘리포니아서는 1991~2001년 4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살균처리는 우유처리와 같은 미열 가열, 급속 냉동, 고압, 미량의 방사선 투여 등의 방법이다.

하지만 업계는 멕시코만 생굴은 미국산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연간 5억달러 규모 라면서 항공 처리 비용으로 업계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또 이미 선상내 냉동 시설 보강과 식당내 경고 문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며 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살균 처리로 인한 맛의 변질도 우려하고 있다.

□ 과장 식품라벨 단속

시리얼이나 소다 등에 있는 '스마트 초이스'등 과장된 식품 라벨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라벨이 소비자들에게 실제 영양 성분과 달리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FDA의 판단이다. FDA는 최근 주요 시리얼, 소다업체 등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잘못된 라벨에 대해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제품군이나 단속 스케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최근 비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식품업체들의 라벨 부착 경쟁은 가열되는 추세다. 켈로그, 크래프트푸즈, 제너럴밀즈 등이 지난해 '스마트 초이스'(Smart Choices)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시리얼, 크래커 등에 '스마트 초이스' 라벨을 부착한 것을 비롯 체크마크, 별, 하트 아이콘 등 유사한 라벨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FDA의 마가렛 햄버거 커미셔너는 "'베터 초이스' '굿 포 유' 등 소비자들은 식품업체들의 무분별한 슬로건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며 "어떻게 절반이

설탕범벅인 제품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영양성분 라벨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무살균 우유 유해? 무해?

미국에서 무살균 우유의 효능 및 유해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축산농가나 단체들은 무살균 우유가 맛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며,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살균 우유 옹호단체인 ‘웨스톤 프라이스 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무살균 우유에 대해 일부 규제조건은 각기 다르지만 28개주가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5개주에서는 애완동물용으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 재단의 셸리 팰론 모렐 대표는 16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무살균 우유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반면 식품의약청(FDA)은 무살균 우유가 인체에 해로운 세균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FDA의 마이클 헬던 대변인은 “무살균 우유에는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세균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무살균 우유에 대한 규제강화나 완화조치를 취하는 등 일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2월부터 무살균 우유의 판매허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무살균 우유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했으나 좌절됐다.

코네티컷주는 작년에 무살균우유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2월 주의회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폐기됐다. 위스콘신 주의 경우 무살균 우유 옹호단체들이 로비스트를 고용해 판매허용을 위한 주의회 로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FDA는 무살균 우유의 생산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옹호단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살균 우유를 마시며 건강과 안전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무살균 우유의 경우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이 무리지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 유통품목

* 천일염

- 김장용 굵은소금 : Wang, 해태, 자연나라, Pacific food, 동원, 신안
- 식용 천일염 : 신안

* 재제염

- 꽃소금(천일염 + 수입염) : 해표, 샘표, 청정원
- 맛소금(정제염 + 조미료) : 백설, 미원

* 가공염

- 구운소금 : 해태, 삼보, 산내들
- 죽염 : 삼보

* 특수 가공염

- 썩소금, 표고다시마소금, 구운마늘소금, 함초소금 : Wang
- 다시마소금 : 해태
- 황토붕숭아소금, 황토녹차소금 : 삼보
- 녹차소금, 함초소금 : 청정원

2. 유통형태 및 유통규격

- 한남체인의 경우 김장용 굵은소금은 3lbs, 5lbs, 10lbs 용량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꽃소금은 1kg, 맛소금은 500g, 1kg, 가공소금은 200g, 300g 용량의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함.
- 소용량 가공소금은 주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기타제품은 모두 비닐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한국마켓 유통제품



3. 가격동향

종 류	제품명	용 량	소매가격 (개당)	브랜드
특수가공염	등심구이용 썩소금	200g	\$2.79	왕
특수가공염	찌개용 표고다시마소금	200g	\$4.29	왕
특수가공염	구이용 구운마늘소금	200g	\$3.19	왕
특수가공염	다시마소금	200g	\$2.19	해태
특수가공염	녹차소금	130g	\$3.99	청정원
특수가공염	황토녹차소금	200g	\$4.29	삼보
천일염	서해바다소금	4.54kg	\$7.49	왕
천일염	굵은소금	4.54kg	\$6.49	해태(중국산)
재제염	꽃소금	1kg	\$2.19	해표
재제염	맛소금	500g	\$1.99	백설
천일염	3년묵은천일염	500g	\$4.29	신안

4. 소비동향 및 수출확대방안

- 한국소금제품의 주요 소비인구는 한인교포들로서 이들은 대체로 천일염과 꽃소금, 맛소금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음. 한국마켓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소금의 주요 용도는 김장용 굵은소금과 요리용 맛소금이며 가정용소금의 경우 가격이 싼 미국 Morton사의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한국산 기능성 소금제품의 종류가 증가하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품성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제품명이나 브랜드 또는 광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08년도에 소금이 식품으로 분류되고 최근 소금시장의 기능성 제품 트렌드에 힘입어 교포시장에서도 한국산 소금의 소비는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한국산 소금의 우수성에 대한 광고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가격저항 심리를 극복하고 나아가 미국소비자가 원하는 포장재와 디자인을 개발해 미국시장을 진입, 프리미엄제품으로의 자리매김이 필요함.

1. 현지 시장 포커스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1-8월 수입액

- 1-8월의 일본국가전체 수입액(32조7,951억엔)중에서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4조4,799억엔으로 수입액전체의 약 13.6%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3.3% 감소함.

□ 야채 수입동향

- 8월의 야채수입량은 전년동월비 104%인 172,682톤으로 나타남. 종류별로는 『신선야채』는 동128%인 41,541톤, 『냉동야채』는 동 97%인 66,990톤, 『염장야채』는 동 65%인 4,644톤, 『건조야채』는 동87%인 2,513톤, 『초조제야채』는 동89%인 2,344톤, 『토마토가공품』은 동123%인 24,576톤, 『기타조제야채』는 동 91%인 28,846톤, 『기타』는 동 269%인 1,228톤으로 『신선야채』, 『토마토가공품』, 『기타』는 전년동월을 상회하고 『냉동야채』, 『염장야채』, 『건조야채』, 『초조제야채』, 『기타조제야채』는 전년동월을 하회함.

□ 신선야채의 수입동향

- 신선야채는 전년동월비 128%인 41,541톤으로 증가하였으나 1월에서 8월까지의 누계로는 전월보다도 3%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비 98%인 414,165톤으로 나타남.
- 수입량이 증가한 주 품목은 단호박이 전년동월비 813%인 205톤, 결구양배추가 동 297%인 281톤, 당근 및 순무가 동 267%인 4,550톤, 브로콜리가 동146%인 3,379톤, 양파가 동134%인 16,627톤 등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산 시황이 상승세로 옮겨간 양파에 대해서는 수입 단가도 동 119%인 킬로그램 당 39엔으로 상승하였음. 8월의 양파 국별 수입량을 보면, 제1위가 중국에서 동 126%인 15,502톤, 제2위가 한국에서 동6,420%인 642톤, 제3위가 미국에서의 동800%인 424톤으로 나타남. 특히 비율이 높았던 한국에 대해서는 신선 야채 전체로 동248%인 2,389톤으로 수입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 내역을 보면 호박으로 동 825%인 198톤, 점보피망이 동156%인 1,343톤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품목은 마 등이 동45%인 37톤, 셀러리가 동76%인 250톤, 우영이 동76%인 250톤, 우영이 동 87%인 2,941톤, 마늘이 동 90%인 1,918톤 등으로 나타남

□ 냉동야채 등 동향

- 「냉동야채」는 전년 동월비 97%인 66,990톤으로 전년을 밑돌았음. 수입량이 증가한 주된 품목은 우영이 동132%인 709톤, 풋콩이 동116%인 6,595톤, 시금치 등이 동109%인 1,727톤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된 품목은, 딸기가 동64%인 2,489톤, 마 등이 동67%인 88톤, 강낭콩 등이 동89%인 1,996톤 등으로 나타남.

□ 기타 종류 동향

- 「신선야채」 「냉동야채」 이외의 종류로 수입량이 증가한 종류의 주된 품목은, 「그 외」의 고구마 (신선·건조)가 전년동월비 512%인 1,054톤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종류의 품목에서는 「엽장 등 야채」의 생강이 동25%인 432톤, 「건조야채」의 양파가 동70%인 351톤, 「식초 조제야채」의 오이가 동87%인 466톤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토마토가공품」은 전체에서는 동123%로 증가하고 있지만, 토마토주스 및 토마토소스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양파 수입동향

- 8월의 수입량은 16,627톤으로 전년동월비 4,207톤(34%) 증가함. 수입액은 6억48백만 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39엔으로 전년동월비 6엔 상승하였음. 주 수입국은 중국이 93%, 한국이 4%, 미국이 3%임.
- 외국산 양파의 입하량 및 도매가격 동향(순별)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09년8월의 주요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96%, 한국이 2%, 호주가 1%, 9월은 중국이 97%, 미국이 3%로 나타남.

구분	8월			9월		
	상	중	하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405	378	419	236	184	135
일본산입하량(톤)	2,694	2,158	3,151	3,016	2,976	2,669
외국산도매가격(엔/kg)	87	93	91	85	78	78
평균도매가격(엔/kg)	140	151	136	124	115	109

- 09년8월까지의 수입물량은 126,308톤(전년동기비101%), 수입액은 47억78백만엔(동112%)이었음.

□ 토마토의 수입동향

- 8월의 수입수량은 279톤으로 전년동월을 28톤(11%) 상회함. 수입액은 66백만엔으

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237엔으로 전년동월 보다 19엔 하락함. 주요수입국 비율은 미국이 44%로 가장 높고 캐나다가 41%, 한국이 15%로 나타남

- 09년 8월까지의 수입수량은 1,255톤(전년동기비 116%), 수입액은 3억43백만엔(동 100%)이었음.

□ 가지의 수입동향

- 무역통계에 의하면 8월 수입실적은 없었음. 8월까지의 수입수량은 183톤(전년동기비78%), 수입액은 41백만엔(동 75%)이었음.

□ 양배추 등 유채속 야채

- 8월의 수입량은 291톤으로(양배추:281톤, 배추:6톤, 기타유채속:4톤)으로 전년동월을 194톤(200%) 상회하였음. 수입액은 18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62엔으로(양배추:50, 배추:77, 기타 유채속:839)으로 나타나 전년동월을 5엔 상회하였음.
- 결구양배추의 주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82%, 한국이 18%로 나타남.
- 식물검역 통계에 의하면 양배추의 검사실적수량은 281톤(전년동월비 297%), 9월은 1,331톤(동793%)으로 나타남. 8월의 주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82%, 한국이 18%, 9월은 중국이 85%, 한국이 15%로 나타남.
- 배추의 수입식물 검역검사의 동향
식물검역통계에 의하면 배추의 8월 검사실적수량은 0.5톤(전년동월7%), 9월은 30톤(동8,706%)로 나타남. 주요수입국비율은 전부 중국으로 9월은 한국이 97%, 중국이 3%로 나타남.
- 양배추 등 유채속의 8월까지의 수입수량은 11,685톤으로(전년동기비 296%), 수입액은 4억49백만엔 (동235%)으로 나타남.

□ 딸기의 수입동향

- 8월의 수입량은 554톤으로 전년동월을 63톤(10%) 하락함. 수입액은 4억93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890엔으로 전년동월보다 139엔 하락함. 주요 수입국 비율은 미국이 93%, 한국이 7%로 나타남.
- 외국산의 입하량 및 도매가격 동향(순별)

구분	8월			9월		
	상	중	하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4	4	5	4	6	5
일본산입하량(톤)	10	10	7	6	7	9
외국산도매가격(엔/kg)	1,142	1,098	1,190	1,183	1,189	1,180
평균도매가격(엔/kg)	1,926	1,765	1,723	2,280	2,447	2,277

- 09년8월까지의 수입물량은 1,347톤(전년동기비96%), 수입액은 11억82백만엔(동83%)이었음.

□ 파프리카 수입동향

- 8월의 수입량은 2,195톤으로 전년동월을 552톤(34%) 증가하였음. 수입액은 6억50백만엔으로 1kg당 평균CIF가격은 296엔으로 전년동월 보다 194엔 하락함.
- 주요수입국은 한국이 61%, 화란이 39%로 나타남.
- 외국산의 입하량 및 도매가격 동향(순별)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09년8월의 주요수입국 비율은 한국이 62%, 화란이 35%, 미국이 3%, 중국이 1%로 나타났으며 9월은 화란이 54%, 한국이 27%, 뉴질랜드가 17%, 미국이 3%로 나타남.

구분	8월			9월		
	상	상	상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143	105	117	92	96	87
일본산입하량(톤)	69	61	53	52	45	51
외국산도매가격(엔/kg)	314	356	450	497	518	500
평균도매가격(엔/kg)	364	373	440	458	484	463

- 09년8월까지의 수입물량은 16,845톤(전년동기비110%), 수입액은 56억58백만엔(동98%)이었음.

□ 단호박 수입동향

- 8월의 수입량은 205톤으로 전년동월을 180톤(713%) 증가하였음. 수입액은 18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90엔으로 전년동월보다 26엔 하락함. 주요수입국별 비율은 한국이 97%, 미국이 3%로 나타남.
- 외국산의 입하량 및 도매가격 동향(순별)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09년8월의 주요수입국 비율은 뉴질랜드가 39%, 한국이 36%, 멕시코가 25%로 나타났으며 9월은 거의가 뉴질랜드로 나타남.

구분	8월			9월		
	상	중	하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3	4	6	3	0	3
일본산입하량(톤)	793	937	1,170	1,372	1,276	1,143
외국산도매가격(엔/kg)	236	104	165	218	3,676	220
평균도매가격(엔/kg)	201	208	194	172	146	135

- 09년8월까지의 수입물량은 81,812톤(전년동기비103%), 수입액은 47억79백만엔(동 80%)이었음.

2. 일본의 현지 유통시장 동향

□ 주요도매시장 채소류 동향 (09년 10월 상순)

(단위:톤,천엔,/kg,%)

구분	주요도매시장			전년동기 대비	
	도매수량	도매가격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야채 총계	119 187	19 067 221	160	108	74
무	12 292	687 259	56	112	44
당근	7 034	768 951	109	98	95
배추	11 980	645 526	54	111	50
양배추	13 169	936 961	71	110	88
시금치	1 205	544 329	452	130	56
파	3 576	1 122 118	314	92	85
부추	558	210 323	377	107	64
아스파라거스	265	209 472	789	121	84
(수입산)	131	93 801	717	101	83
브로콜리	1 602	492 161	307	147	69
(수입산)	239	63 617	267	85	82
양상추	7 132	534 933	75	130	33
오이	4 716	820 895	174	110	46
단호박	3 623	451 158	125	81	125
(수입산)	6	1 061	188	382	51
가지	2 949	467 623	159	128	48
토마토	6 136	1 460 951	238	182	54
미니토마토	1 136	575 635	507	139	81
피망	1 922	339 853	177	127	59
풋콩	344	218 705	635	126	92
감자	8 066	860 288	107	88	124
양파	12 688	1 261 214	99	96	124
(수입산)	503	40 101	80	144	114
마늘	232	120 049	518	98	73
(수입산)	130	24 800	191	90	124
생강	376	172 560	459	110	75
(수입산)	101	24 920	246	100	79
표고버섯	632	601 517	952	96	86
(수입산)	25	9 047	364	105	85
팽이버섯	1 421	295 179	208	119	78
(수입산 야채 총계)	1 955	1 027 411	526	104	91

□ 주요도매시장 과일류 동향 (09년 10월상순)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전년동월대비	
	도매수량	도매금액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과실총량	43 258	9 829 637	227	99	94
국산과실총량	35 350	8 470 151	240	98	96
밀감	10 411	1 864 153	179	99	97
아마나츠 밀감	-	-	-	-	-
기타 밀감	275	82 255	299	106	70
사과 합계	7 370	1 521 586	206	110	90
(츠가루)	2 782	422 176	152	83	82
(조나골드)	300	69 273	231	151	79
(왕립)	22	3 429	154	235	75
(후지)	1 115	283 811	255	176	87
일본 배 합계	4 445	922 100	207	74	107
(행수)	16	3 694	234	10	153
(풍수)	918	197 789	215	39	110
(이십세기)	303	46 502	153	51	94
(신고)	2 058	380 611	185	110	110
감 합계	6 883	1 305 641	190	110	86
(단감)	715	172 969	242	103	89
(땡감)	6 168	1 132 671	184	111	86
복숭아	27	10 783	392	69	96
자두	70	30 409	431	122	86
매실	0	35	608	100	93
포도 합계	2 809	1 560 643	556	108	93
(텔러웨어)	31	15 461	505	52	105
(거봉)	1 291	695 292	539	100	94
밤	654	255 440	391	58	138
딸기	27	56 913	2 077	185	95
메론 합계	1 072	411 039	384	106	91
(온실메론)	540	242 609	449	108	90
(안데스메론)	48	13 499	283	84	100
수박	269	44 083	164	90	110
수입과실 합계	7 908	1 359 486	172	103	84
(바나나)	4 855	652 289	134	103	77
(오렌지)	515	85 161	165	89	102
(수입키위)	389	173 313	446	91	95
(수입멜론)	135	16 542	122	107	83

3.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 농림수산물 수입개요

- 09년 1-8월 농림수산물 수입액 : 4조4,799억엔 (전년 동기대비 23.3% 감소)
 - 국가전체 수입액(32조7,951억엔)의 약 13.6%점유
 - 비중별 : 농산물(2조3,027억엔, 51.3%) > 수산물(8,564억엔, 19.1%) > 축산물(7,945억엔, 17.3%) > 임산물(5,400억엔, 12.0%) 순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실적(금액기준)>

(단위: 천엔, %)

구 분	2009년1-8월		전년동기 대비	2008년1-8월
	금액	점유비		
국가 전체	32,795,171,497	-	△39.3	53,990,675,799
농림수산물	4,479,995,881	100.0	△23.3	5,840,383,647
농 산 물	2,302,705,036	51.3	△25.5	3,092,424,628
축 산 물	779,450,577	17.3	△16.4	932,168,900
임 산 물	540,056,842	12.0	△30.3	774,569,914
수 산 물	856,406,621	19.1	△17.5	1,038,547,976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무역통계)

□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동향(1~8월 금액누계)

(단위 : 백만엔, %)

품목명	1~8월	전년	전년동	1위		2위		3위	
	누계	동기	기대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계육조제품	86,044	78,924	9.0	태국	51,203	중국	34,221	한국	207
정제당	172	169	1.7	브라질	65	한국	50	프랑스	21
껌	113	160	-29.6	중국	39	한국	31	태국	16
쿠키,비스킷,크레커	4,117	5,338	-22.9	미국	528	중국	514	한국	441
코코아조제품	1,155	1,033	11.9	싱가폴	814	한국	211	말레이시아	69
알콜음료	103,466	137,539	-24.8	프랑스	40,035	한국	10,142	이탈리아	9,586
쇼토닝	166	2615	-36.5	말레이시아	136	한국	24	미국	4
조제식료품	54,449	67,240	-19.0	미국	14,844	중국	6,396	한국	6,071
곤약	1,334	1,257	6.1	중국	1,155	한국	102	인도네시아	76
면실유	453	676	-32.9	호주	261	미국	190	한국	2
인삼	1,029	1,142	-9.9	중국	946	한국	59	대만	24

□ 한국산 신선채소류 수입동향(1~8월 금액)

(단위 : 백만엔, %)

품목명	1~8월	전년	전년동	1위		2위		3위	
	누계	동기	기대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박	23	8	178.8	한국	12	미국	11		
멜론	2,267	2,415	-6.1	멕시코	1,881	미국	222	한국	112
밤	413	385	7.4	중국	378	한국	22	이탈리아	12
딸기	1,181	1,421	-16.9	미국	1,011	한국	170	핀란드	0
매실(조제품)	1,545	1,637	-5.6	중국	1,504	대만	40	한국	1
토마토	342	343	-0.2	한국	158	미국	71	캐나다	62
마늘	1,175	1,363	-13.8	중국	1,129	한국	18	미국	17
결구양배추	404	136	197.0	중국	186	한국	152	대만	65
배추	2	2	-12.6	한국	2				
기타 유채속	42	51	-18.4	중국	34	한국	5	호주	1
오이	7	4	76.1	한국	7				
가지	41	54	-24.9	한국	41				
송이버섯	1,705	1,598	6.7	중국	1,653	멕시코	27	한국	21
고추속,피망속	5,808	5,926	-2.0	한국	3,828	화란	993	뉴질랜드	986
파프리카	5,658	5,773	-2.0	한국	3,678	화란	993	뉴질랜드	986
호박	4,779	6,313	-24.3	뉴질랜드	3,845	멕시코	888	한국	19
건조야채	15,529	17,991	-13.7	중국	12,868	미국	1,506	한국	223
건포고	3,634	4,448	-18.3	중국	3,422	한국	210	바어마	1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 가공식품의 수입동향(09.8월)

- 가공식품(종합) 8월 수입수량 지수는 87.8로 전년동월 대비 -2.4%로 약간 하락하였으며 가공식품(주류 제외)은 86.9로 전년동월 대비 -2.5%로 약간 하락함.
- 부분별로 보면 수산가공품, 조미료가 약간 상승한 반면에 당류가 대폭 하락하고 제곡분가공품이 상당정도 하락하고 축산가공품, 음료가 약간 하락하고 농산가공품, 과자, 기타 조제식료품, 주류가 약간 하락함.
- 가공식품(종합) 8월 수입액은 1,045억엔으로 대전년동월비 -17.8%로 대폭 감소함. 가공식품(주류 제외)은 913억엔으로 대전년동월비 -16.4%로 대폭 감소함.
- 부분별로 보면 축산가공품, 제 곡분가공품, 당류, 과자, 음료, 기타조제식료품, 주류가 대폭 감소하고 수산가공품, 농산가공품이 상당정도 감소함.

-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축산가공품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89.0으로 전년동월 대비 -4.4%로 약간 하락하였음. 소고기조제품 등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자연 치즈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조제품 등이 약간 증가하였음. 한편 소시지, 햄, 베이컨, 아이스크림 류가 대폭 감소하였고 기타 축산조제품이 약간 감소하였음.
- 수산가공품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84.6으로 전년동월 대비 4.9%로 약간 상승하였음. 가공뱀장어 등이 대폭 증가하였고 새우조제품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음. 한편 게 조제품등이 대폭 감소하였고 어란 조제품이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고, 참치 캔, 오징어조제품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 농산가공품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87.2로 전년동월 대비 -1.9%로 약간 하락하였음.
- 야채부분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94.7로 전년동월 대비 -1.5%로 약간 하락하였음. 조제토마토 등이 대폭 증가하였고 두류 등이 약간 증가하였음. 한

편 죽순 등이 대폭 감소하였고 스위트 콘 등이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음.

- 과실부분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71.1로 전년동월 대비 -3.0%로 약간 하락함. 썬 낙화생, 넛트조제품 등이 대폭 증가하였고, 낙화생조제품, 복숭아캔이 약간 증가하였음. 한편 파인애플 캔, 감귤류, 기타 과실조제품, 혼합과일 (mixed fruits)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 제곡분조제품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79.2로 전년동월 대비 -7.3%로 상당히 저하함. 쌀가루조제품, 소맥분조제품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파스타, 기타 면류 등이 대폭 감소함. 파스타 등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식빵, 건빵이 약간 감소하고 케익믹스 등이 약간 감소하였음.
- 당류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89.2로 전년동월 대비 -19.5% 대폭 저하함. 조당, 함밀당 등이 대폭 감소하고 기타 당류 등이 약간 감소함.
- 과자류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94.8로 전년동월 대비 -2.6%로 약간 저하함. 코코아분, 캔디류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초코렛과자, 비스킷, 크래커가 약간 증가함. 한편 기타 과자가 상당히 크게 감소하고 초코렛, 코코아조제품등이 상당히 감소함.
- 음료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94.5로 전년동월 대비 -5.3%로 다소 저하함. 자몽과즙, 타 감귤과즙, 야채쥬스 등이 대폭 증가하고 사과과즙, 포도과즙이 상당 증가함. 한편 오렌지과즙 등이 대폭감소하고 청량음료 등이 약간 감소함.
- 조미료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94.0으로 전년동월 대비 4.0%로 약간 상승함. 식초류가 대폭 증가하였고 기타 소스가 상당히 크게 증가함. 한편 토마토케첩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기타 혼합조미료가 약간 감소하였음
- 가공유지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127.5로 전년동월 대비 15.0% 대폭 상승함. 마가린이 대폭 증가함

- 기타 조제식료품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76.5로 전년동월 대비 -1.8%로 약간 저하함. 밀크조제품등이 상당히 증가하고 기타 조제품이 약간 증가함. 한편 스프류, 커피 등을 기초로 한 조제품이 상당히 크게 감소함.
- 주류의 8월 수입수량 지수는 93.9로 전년동월 대비 -2.1%로 약간 저하 됨. 합성청주가 대폭증가하고 위스키가 상당히 증가함. 한편 리큐어(liqueur)가 상당히 크게 감소하고 맥주가 상당히 감소함.

(자료원 : (사)식료수급연구센터)

□ 일본 절임류 및 김치 생산동향

(단위: 천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절임류	1,135	1,176	1,186	1,184	1,131	1,032	972	974	956	950
김치	249	320	351	386	379	313	284	252	243	237
(%)	(21.9)	(27.2)	(29.6)	(32.6)	(33.6)	(30.3)	(29.2)	(25.8)	(25.4)	(24.9)

(자료원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 일본 절임류 품목별 생산량

(단위: 톤)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까지	증감율
절임류전체	1,131,926	1,032,877	972,947	974,809	956,836	950,164	610,999	-3.6
간장절임류 (김치)	560,439 (379,606)	496,491 (313,410)	466,037 (284,914)	433,302 (252,123)	425,309 (243,028)	423,467 (237,937)	262,378 (140,576)	-6.4 -10.0
아사즈케류	164,723	148,031	149,082	154,470	158,010	155,478	105,347	0.2
소금절임류	149,348	149,450	129,279	146,827	135,871	130,707	88,017	0.5
초절임류	107,756	105,372	94,359	102,450	99,549	100,083	67,800	-2.2
쌀겨절임류	89,791	74,440	73,536	80,236	81,094	85,151	55,042	-2.5
주박절임류	35,460	35,669	37,665	34,983	34,508	35,099	20,797	-5.7
된장절임류	9,930	9,047	8,044	7,974	8,008	7,632	4,844	-4.7
기타절임류	14,478	14,377	14,945	14,567	14,486	12,546	6,774	-16.0

(자료원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주의: 쌀겨절임류: 단무지포함)

□ 일본의 김치 시장규모

구분	시장규모 (톤)					
	2003(점유율%)	2004(점유율%)	2005(점유율%)	2006(점유율%)	2007(점유율%)	2008(점유율%)
합계	410,460 (100.0)	345,611 (100.0)	316,067 (100.0)	274,749 (100.0)	265,113 (100.0)	261,001 (100.0)
일본산	379,606 (92.5)	313,410 (90.7)	284,914 (90.1)	252,123(91.7)	243,028(91.6)	237,937(91.1)
한국산	30,854 (7.5)	32,202 (9.3)	31,153 (9.9)	22,626(8.3)	22,085(8.4)	23,064(8.9)

(자료원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일본 재무성 통계자료)

□ 한국산 김치 수입실적

(단위:톤,백만엔,엔/kg)

구분	수입실적(한국산)				수입단가
	수입량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6	10,034	4.1	4,125	38.8	411
1997	10,826	7.9	4,580	11.0	423
1998	15,015	38.7	5,576	21.7	371
1999	23,905	59.2	8,931	60.2	374
2000	22,260	▲6.9	8,410	▲5.8	378
2001	22,197	▲0.3	8,092	▲3.8	365
2002	27,351	23.2	9,486	17.2	347
2003	30,854	12.8	10,349	9.1	335
2004	32,202	4.4	10,435	0.8	324
2005	31,153	▲3.3	9,817	▲5.9	315
2006	22,626	▲27.3	7,468	▲23.9	330
2007	22,085	▲2.3	7,522	0.7	340
2008	23,064	4.4	7,940	5.5	344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주의: 순수 한국산 김치의 수입통계는 세분되고 있지 않아 세번 200590292와

200590299를(2007년부터 관세번호 변경 2055.99-919, 2055.99-999로 변경) 합산하여 만든 수치임.

□ 일본의 절임류(김치포함) 수입동향

(단위 : 톤, 백만엔)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45,333	26,410	140,648	26,211	133,661	26,308	113,433	22,455
한국	31,153	9,817	22,626	7,468	22,085	7,522	23,064	7,940
기타	114,180	16,593	118,022	18,743	111,576	18,786	90,369	14,515

자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4. 경제동향

□ 경기동향

- 경기는 회복되고는 있으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수출은 아시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은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 고용정세는 악화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전망 : 당분간 고용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나 해외경제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경기의 회복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고용정세가 한층 더 악화되고 해외경기의 침체우려, 금융자본시장의 변동영향 등 경기가 한층 더 후퇴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책동향

- 일본정부는 가계의 지원에 따라 개인소비를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여 내수를 증시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도록 정책운영을 하고 또한 현 상황의 어려운 고용정세에 세심한 주의로 대응책을 검토함.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일본경제가 물가안정 하에서의 지속적 성장경로로 복귀하기위해 계속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서 적절하고 기동적인 금융정책운영을 기대하고 있음

□ 소비·투자 등 수요동향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 주택건설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공공투자는 견조한 추이를 보임
- 수출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입은 회복되고 있음. 무역·서비스 지수의 흑자는 증가하고 있음
 - 수출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쪽의 수출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쪽 수출은 모두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향후 전망은 세계적 재고조정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증가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수입은 회복되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감소하고 있음.
 - 국제수지를 보면 수출금액은 증가, 수입금액이 약간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 폭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지수 적자폭은 보합세임. 그 때문에 무역·서비스 수지 흑자는 증가하고 있음.

□ 기업활동과 고용정세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은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화되고 있음. 또한 기업 동향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단지 중소기업에서는 그 속도가 늦으며 도산건수는 보합세임
- 고용정세는 악화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 물가와 금융정세

- 국내 기업물가는 보합세임. 소비자물가는 다소 하락하고 있음
- 주가는 10,300엔대부터 10,500엔대까지 상승한 후 9,600엔대까지 하락하고 그후 10,000엔대까지 상승하고 있음. 달러 환율은 92엔대에서 88엔대까지 엔 상승 후, 89엔대 추이되고 있음.

(자료원 : 10월16일 내각부 발표)

1. 현지 시장 포커스

□ 중국, 2020년 세계 최대 소비시장

‘세계의 공장’중국이 10년 뒤에는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로이터통신을 인용, 중국은 온라인쇼핑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젊은 부유층의 성장으로 202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인의 높은 저축률과 빠른 도시화, 내수활성화 정책 등은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인은 작년 말 기준 저축률이 51.4%로 미국인의 5%에 비해 매우 높아 소비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현재 45%수준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도시화비율이 올라가면 주민소득도 상승해 소비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중국의 젊은 층은 도시화 속에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수출 주도의 경제체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개혁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 저축률이 떨어지고 대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온라인쇼핑 붐은 새로운 소비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2분기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563억6000만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91.9%나 폭증하면서 같은 기간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15%를 크게 초과했다.

아시아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토토망(淘宝网)의 회원 수는 현재 1억4500만명으로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토토망의 수익원은 광고소득이며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의 3-4억위엔보다 10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은행 관계자는 “중국의 소비가 구조적인 변화를 맞고 있으며 중국 경제성장구조와 세계 소비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하고 “온라인거래”는 중국 소비의 성장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소비 장애를 제거하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중국 세계 경제 공헌도 1위

중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세계 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가장 큰 것으로 자평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신 중국 건국 60년 보고서에서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 후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됐으며 2007년 이미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커졌다고 밝혔다.

중국의 GDP규모는 개혁개방 30년간 4배 이상 증가, 2008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그 결과 중국의 1978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2.3%에 불과했으나 2007년 19.2%로 확대돼 미국보다 3.5% 포인트, UN보다 6.3% 포인트, 일본보다 11.7% 포인트 각각 높았다.

또 같은 기간 중국의 세계경제 성장률 기여도는 0.1%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확대되어 세계에서 가장 컸다고 통계국은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올해도 중국의 세계경제 공헌도도 세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시장동향

□ 코카콜라사 중국 유제품 시장 진출

9월12일 코카콜라사는 상해에서 중국시장에서 처음으로 우유음료제품을 출시시켰다. 새로 출시한 제품의 중국어명칭은 美汁源果粒奶优(미닛메이드 과일우유음료)이며 이로써 코카콜라사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美汁源(미닛메이드)'브랜드의 제품종류는 더욱 다양하게 되었다. 코카콜라사는 지난번 중국의 유명한 과즙회사인 회원(滙源)사에 대한 인수를 통해 비 탄산음료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크게 올리고자 했지만 인수에 실패한 후 다시금 우유음료제품 시장에서 대규모 액션을 취한 셈이다.

코카콜라사가 중국시장에 출시한 유제품인 美汁源果粒奶优의 용량은 450ml이며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3가지 맛으로 구성됐으며 우유원료는 뉴질랜드 수입산을 사용하며 시중에서의 판매가격은 3.8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업계인사들은 코카콜라사가 미국시장에서 우유맛 사이다를 출시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중국시장에서 과일우유제품을 내놓은 것은 우유제품시장이 음료업계 주요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쟁탈 목표시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시장에서 와하하의 우유음료제품인 "영양쾌션"이 시장점유율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에 이어 왕왕(旺旺)우유, 소양인(小洋人)우유 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얼마 전 국내 과즙생산업체인 회원사는 1.3억위안을 투자해 우유음료회사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중국 내 우유음료제품 시장에서 코카콜라사는 아직 시작단계에 놓여있다.

코카콜라사 대중화 지역 총재는 중국 내 우유음료제품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전국범위에서 무료시음 활동을 전개하며 생산된 제품도 올해 연말 전으로 국내 300개 도시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 원료 면에서 중국산 우유 원료의 사용여부에 대해 사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수년간 중국 내 과일우유음료제품의 개발과 판매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 전문조사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 내 과일우유 음료제품의 판매량이 62억ℓ에 달한다. 국내시장의 잠재력 또한 여전히 커서 이를 둘러싼 국내외 음료제품 생산업체간의 쟁탈전이 향후 더욱 가열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국 올해 곡물생산 사상 최고

올해 중국의 곡물 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연속 증산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농업부 손정재 부장은 금융위기의 충격과 시장가격 파동으로 인한 도전, 다발적인 자연재해 등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곡물 생산이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중국 농업부는 올해 곡물 생산이 거둔 성과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적인 곡물 생산과 증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 겨울 파종작업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올 겨울 밀 재배면적은 3억3,300만무(1무≒200평)이상, 겨울 유채 재배면적은 1억 무 이상으로 남부지역의 겨울 감자 재배면적은 2,000만무 이상으로 각각 유지할 계획이다.

지역별 환경에 따라 옥수수와 야채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작물의 재배면적을 적절히 확대하고 밀 1무당 생산량 320kg이상, 유채 1무당 생산량 128kg이상 도 달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 중국 충칭샤브샤브(重慶火鍋) 양념표준 올해 출범

충칭시 기술감독국 산하 국가농산물 가공품·조미료 품질감독검사센터가 마련한 샤브샤브 양념 국가표준(안)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충칭시 정부의 주도 아래 마련된 이 '표준'은 40여명으로 구성된 중국 전문가 그

롭의 심의를 거쳐 현재 국가표준화 위원회의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표준'에서 정의한 마라(麻辣, 얼얼하고 매운맛) 샐러드 양념은 동식물 기름, 소금, 콩짜개, 고추, 산초(花椒)등 향신료를 주요 원료로 볶거나 끓여서 가공하고 거기에 여타 보조 재료를 배합해 만든다.

'표준'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왔던 샐러드 국물에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국물속의 기름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산가(酸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

충청시가 2003년에 발표한 '샐러드 양념 지방표준'은 산가를 4 이하로 규정했지만 국가표준은 3.5이하로 기준을 높였다.

'표준'은 또 매운맛을 15개 등급으로 나눠 소비자들이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샐러드 국물에서 빠질 수 없는 얼얼한 맛은 아직도 음식점의 요리사 또는 샐러드 양념을 만드는 업체의 조미료 배합기술에 의해 그 정도가 결정될 뿐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밖에 '표준'은 샐러드 양념을 만드는데 국물 색깔을 위해 넣는 파라핀과 수단레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파라핀검측 방법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동향 개요

2009년 8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31.1억달러로 전월 대비 1.5억달러 감소하여 4.6%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6.1% 감소했다.

2009. 1~8월 농산품 수출액은 241.7억달러로 동기대비 8.0% 감소했다.

2009년 8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43.3억달러로 전월 대비 9.8억달러가 감소하여 18.4%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23.5% 감소했다.

2009.1~8월 농산물 수입액은 333.5억달러로 동기대비 23.5%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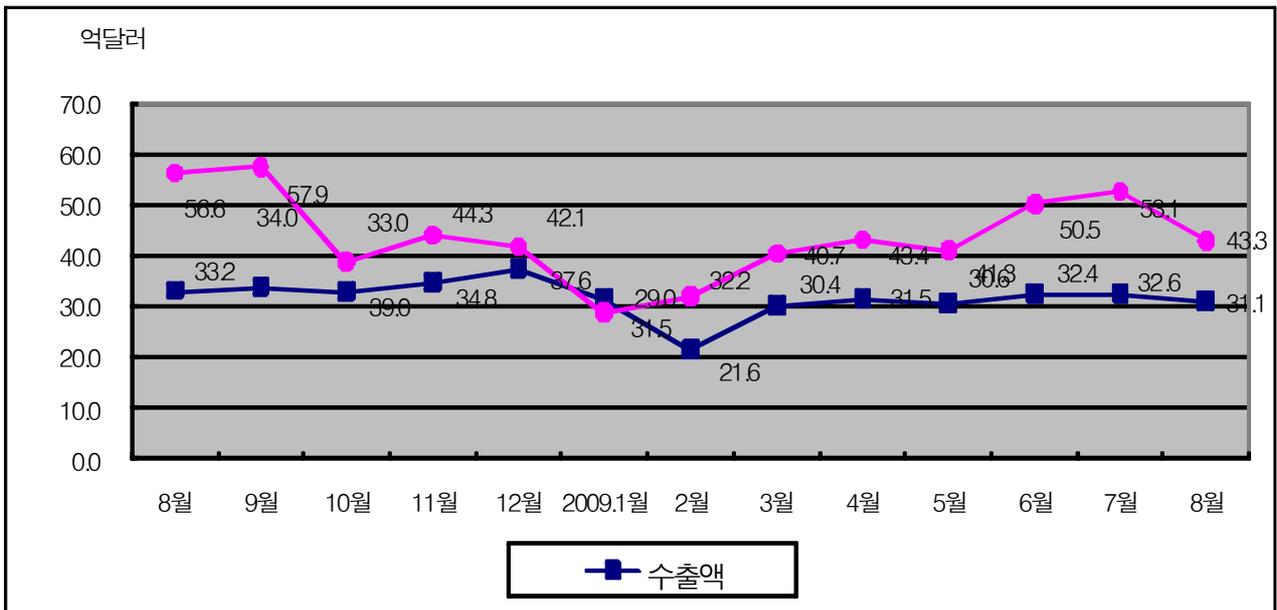
< 2009. 8월 중국 농산물 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구 분	8월 당월		8월 누계	
	금 액	전년동기대비(%)	금 액	전년동기대비(%)
◦ 수출액	31.1	-6.1	241.7	-8.0
◦ 수입액	43.3	-23.5	333.5	-16.7
□ 무역수지	-12.2	-	-91.8	-

자료원 : 中華人民共和國海關 통계

< 중국의 월별 농산물 수출입 추이 >



나. 농산물 부류별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품목부류	1~8월			품목부류	1~8월		
	2008	2009	증감		2008	2009	증감
산동물	5,473.8	8,972.7	63.9	동식물유지 등	775,273.7	474,283.3	-38.8
축산육류 및 잡육	94,793.7	45,909.9	-51.6	육류제품	465.7	210.5	-54.8
가금육 및 잡육	72,044.3	60,904.5	-15.5	수산물제품	3,414.9	3,461.1	1.4
수, 해산품	234,014.6	211,537.0	-9.6	당류제품	33,387.7	36,349.6	8.9
유제품, 난류, 꿀 등	55,586.3	67,953.3	22.2	코코아, 그제품	21,100.5	11,176.5	-47.0
기타 동물산품	17,553.0	19,084.7	8.7	곡물, 전분제품 등	42,857.7	63,153.7	47.4
산식물 및 화훼	6,205.9	5,349.3	-13.8	채소,과실,견과제품	20,675.7	22,007.2	6.4
식용채소	42,659.6	64,160.1	50.4	기타식품	29,309.8	29,491.6	0.6
식용과실 및 견과	83,608.8	115,004.6	37.6	음료, 술 및 식초	72,883.0	60,195.8	-17.4
커피, 차, 조미향료	6,509.7	5,228.6	-19.7	식품공업 잔류물	130,318.7	128,104.3	-1.7
곡 물	53,754.7	54,338.1	1.1	연초 및 그제품	35,209.7	35,663.8	1.3
제분공업제품	15,146.4	17,379.9	14.7	기타농산품	577,112.6	359,812.3	-37.7
유료, 볏짚, 사료 등	559,367.3	422,125.4	-8.8	가금류제품	81,101.7	68,313.6	-15.8
식물액, 즙	7,282.1	7,996.4	9.8	축산제품	434,718.5	324,981.8	-25.2
편직용 식물재료	5,835.3	5,467.1	-6.3	-			

다. 농산물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국가별	1~8월			국가별	1~8월		
	2008	2009	증감		2008	2009	증감
◦ 아시아	930,133.4	674,008.8	-27.5	◦ 남 미	1,259,232.6	1,022,450.1	-18.8
- 인도네시아	212,804.9	145,518.5	-31.6	-아르헨티나	462,004.1	238,426.6	-48.4
- 일 본	23,274.3	22,585.6	-3.0	- 브라질	627,512.0	607,346.6	-3.2
- 말레이시아	296,446.4	177,083.0	-40.3	◦ 대양주	274,203.0	246,780.3	-10.0
- 한 국	19,689.5	17,209.8	-12.6	- 호 주	206,724.4	155,019.8	-25.0
- 태 국	86,375.4	103,513.7	19.8	- 뉴질랜드	65,774.0	90,499.2	37.6
◦ 북 미	1,113,192.7	1,018,352.3	-8.5	◦ 유 럽	352,141.9	296,482.8	-15.8
- 캐나다	114,077.4	174,758.7	53.2	- 프랑스	96,250.2	71,005.0	-26.2
- 미 국	997,758.9	841,396.3	-15.7	- 네덜란드	34,823.6	28,116.7	-19.3

라. 주요 농산물의 국가별 수출입현황

□ 수출동향

(단위 : 만불)

구 분	2008 1~8월	2009 1~8월	증감(%)
◦ 차 잎	46,858.6	46,752.2	-0.2
- 모 로 코	9,064.0	9,470.1	4.5
- 일 본	3,796.0	3,609.5	-4.9
- 미 국	2,865.7	2,446.0	-14.6
◦ 쌀	35,372.9	36,482.4	3.1
- 한 국	8,078.5	13,687.5	69.4
- 일 본	2,551.6	6,189.1	142.6
- 나이지리아	2,010.5	2,574.9	28.1
◦ 마 늘	55,616.0	61,025.2	9.7
- 인도네시아	12,273.6	11,699.2	-4.7
- 미 국	6,840.8	6,450.7	-5.7
- 브라질	3,189.8	4,224.4	32.4
◦ 감귤속 과실	20,714.1	30,448.9	47.0
- 말레이시아	4,947.6	5,120.2	3.5
- 인도네시아	4,916.8	8,713.5	77.2
- 베트남	3,738.3	5,753.1	53.9
◦ 계육제품	35,395.1	37,775.9	6.7
- 일 본	30,484.7	33,135.5	8.7
- 한 국	2,057.1	810.3	-60.6
- 홍콩	2,530.6	2,722.7	7.6
◦ 사 과	39,716.5	36,814.5	-7.3
- 러시아연방	8,176.9	6,615.7	-19.1
- 카자흐스탄	2,209.6	3,051.8	38.1
- 인도네시아	6,037.8	4,930.3	-18.3
◦ 중 약 재	29,014.7	28,053.9	-3.3
- 홍콩	7,387.0	6,872.7	-7.0
- 베트남	4,384.7	5,067.3	15.6
- 일 본	5,702.8	6,171.9	8.2

□ 수입동향

(단위 : 만불)

구 분	2008 1~8월	2009 1~8월	증감(%)
◦ 과실 및 견과	77,773.6	109,730.0	41.1
- 태 국	23,350.7	36,792.3	57.6
- 베 트 남	13,252.4	19,689.1	48.6
- 칠 레	8,974.0	16,171.5	80.2
◦ 당 류	26,395.9	30,662.4	16.2
- 브 라 질	16.1	4,816.6	29,753.4
- 쿠 바	16,565.8	14,089.7	-14.9
- 태 국	1,297.6	4,361.3	236.1
◦ 대 두	1,480,354.2	1,271,931.2	-14.1
- 미 국	588,832.2	541,228.7	-8.1
- 브 라 질	557,772.0	568,099.9	1.9
- 아르헨티나	309,851.3	133,648.8	-56.9
◦ 면 화	272,389.2	126,809.8	-53.4
- 미 국	110,833.1	65,143.8	-41.2
- 인 도	90,456.3	14,451.5	-84.0
- 우즈베키스탄	26,435.6	15,786.6	-40.3
◦ 올리브유	360,002.8	216,154.6	-40.0
- 말레이시아	237,383.7	136,430.1	-42.5
- 인도네시아	119,432.8	79,718.2	-33.3
- 일 본	10.8	3.9	-63.8
◦ 옥 수 수	567.5	603.8	6.4
- 독 일	65.1	103.2	58.5
- 미 국	257.7	348.7	35.3
- 라 오 스	5.7	40.8	613.9

마. 한국산 수입동향

(1)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품목	중국 총수입액		한국산 수입액		기타국별 수입액('09.08누계)		
	'08.08누계	'09.08누계	'08.08누계	'09.08누계			
자당	62,915	40,137	28,347	31,276	태국 (4,135)	호주 (1,420)	미얀마르 (994)
채소종자	44,593	46,697	942	1,309	태국 (4,333)	네델란드 (3,194)	일본 (15,127)
기타베이커리제품	34,182	29,176	7,109	9,014	대만 (4,453)	인도네시아 (1,917)	홍콩 (10,118)
라면	4,390	5,285	20,082	19,852	홍콩 (1,503)	일본 (1,047)	대만 (645)
맥주	27,058	30,980	2,525	2,165	멕시코 (5,970)	독일 (12,015)	벨기에 (2,093)
유아용 조제분유	227,231	386,086	1,487	2,387	싱가폴 (194,982)	아일랜드 (23,543)	뉴질랜드 (108,020)
생우유	7,235	11,876	56	973	뉴질랜드 (6,598)	프랑스 (2,049)	호주 (872)
소주	11,247	8,527	5,418	3,328	대만 (1,272)	일본 (2,823)	멕시코 (854)
간장	5,907	6,597	1,230	1,058	일본 (4,353)	대만 (722)	싱가폴 (650)
팽이버섯	224	2,624	539	6,277	대만 (418)	-	-

※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해관에 타 H.S 코드로 신고하여 한국수출 실적보다 적음

(2)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품목별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자 당 : (2008.8) 28,347천불 → (2009.8) 31,276천불 (10.3%증가)
 - '09년 8월까지 중국의 자당 수입액은 40,137천불이며, 이중 한국산 수입액이 77.9%인 31,276천불로 중국의 최대 공급 국가임.
 - 설탕수요량이 많은 계절로서 식품산업 원료 및 가정용 설탕 용도로 많이 쓰이는 한국산은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음.
- 채소종자 : (2008.8) 942천불 → (2009.8) 1,309천불 (38.8%증가)
 - 한국산 채소종자는 무, 배추, 고추 등 경쟁력이 있는 고급품종 위주로 수입되어 현지 재배용으로 사용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8월까지 수입액은 1,309천불로 지난해 대비 38.8% 증가함.
- 기타 베이커리제품 : (2008.8) 7,109천불 → (2009.8) 9,014천불(26.8%증가)
 - 한국산 비스킷 등 기타 베이커리제품의 수입액은 2009년 8월까지 9,014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6.8% 대폭 증가하였음.
 - 최근 중국 소비자의 고급 제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판촉을 통해 한국산이 알려지면서 한국산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라 면 : (2008.8) 20,082천불 → (2009.8) 19,852천불 (1.1%감소)

- 라면 소비대국인 중국은 향후에도 소비 잠재력이 큰 국가이나 대부분 저가 라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 직수입 라면은 교민 위주로 판매되고 있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브랜드 라면이 수입산과 가격 차이를 두고 대형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수입라면의 대형매장 진입은 다소 어려움.
- 맥 주 : (2008.8) 2,525천불 → (2009.8) 2,165천불 (14.2%감소)
- 한국산 맥주는 중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세로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우며 중국산과 한국산의 맛 차이로 현지인 시장 개척은 다소 시간이 필요함.
 - 현재 주로 한국식당 및 술집 등 요식업소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14.2% 감소한 2,165천불이 수입되었음
- 유아용조제분유 : (2008.8)1,487천불 →(2009.8)2,387천불 (60.5%증가)
- 중국의 유아제품 소비 잠재력은 아주 크며 특히 자국산 분유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있음.
 - 한국산 분유는 현지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 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 생우유 : (2009.8) 56천불 → (2009.8) 973천불 (1,626.1%증가)
- 멜라민 우유사건 이후 교민교포시장의 한국우유 소비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여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소 주 : (2008.8) 5,418천불 → (2009.8) 3,328천불 (38.6%감소)

- 중국인들의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산 주류의 대표주로서 소주를 선호하고 있어 증가추세 전망.
 -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과 조선족이 주요 고객으로 최근 한화 하락에 따른 교민교포시장 소비 위축으로 지난해 대비 37.3% 대폭 감소
- 간 장 : (2008.8) 1,230천불 → (2009.8) 1,058천불 (14.0% 감소)
- 중국산에 입맛 들여진 현지인은 대부분이 가격이 싼 중국산을 선호하며 수입품으로는 일본산이 강세임.
 - 한국산은 일부 대형매장과 한국식품점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식당 등에서 소비되고 있음.
- 팡이버섯 : (2008.8) 539천불 → (2009.8) 6,277천불 (1,064% 증가)
-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좋고 유통기간이 길어 외식체인(휘귀 등)으로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4. 경제브리핑

□ 중국 8월까지 수출입총액 13,386.5억달러, 전년대비 22.4% 감소

2009년 8월까지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3,386.5억달러로 전년대비 22.4% 감소하였다. 그 중 수출액은 7,307.4억달러로 22.2%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6,079.2억달러로 22.7% 감소하여 1,228.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2009. 8월 중국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8월 당월		8월 누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 수출입총액	1,917	-20.6	13,386.5	-22.4
수 출 액	1,037.1	-23.4	7,307.4	-22.2
수 입 액	880	-17	6,079.2	-22.7
□ 무역수지	157.1		1228.2	

□ 3/4분기 대외직접투자 동기대비 190% 증가

상무부에 따르면 3/4분기 대외직접투자는 동기대비 190% 성장하고 2/4분기 대비 135.3% 성장하였다.

1-9월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112개 국가와 지역의 1,612개 해외기업에 총 328.7억불을 투자하여 지난해 동기대비 0.5% 증가하였다. 그중 투자액이 1억불을 초과한 국가(지역)는 17개이고 인수방식을 통한 직접투자는 143억불로 같은 시기 투자총액의 43.5%를 차지하며 인수분야는 주로 광업, 제조업이 포함되었다.

□ 1-8월 누계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기대비 1.1% 하락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8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대비 1.1% 하락했다. 그 중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1.3% 하락하고 농촌 소비자물가지수가 0.7% 하락하였다.

8대류 상품가격 중 3대류 가격이 상승하고 5대류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중 담배, 술 및 관련 제품 가격이 1.6% 상승하였으며 가정용 설비용품 및 가공정비서비스 가격은 0.6% 상승하고 의료와 보건 및 개인용품류 가격이 1.0% 상승하였다.

식품 가격이 0.1% 하락하고 의복류 가격이 2.3% 하락하였으며 교통과 통신류 가격은 2.6%,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류 가격은 0.7%, 주거 비용은 4.4% 하락하였다.

□ 1-9월 중국 공업이윤 전년 동기대비 9.1% 하락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월 중국 내 22개 지역 공업이윤이 총 1조 5,54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하락했으며 하락폭은 지난 1-8월 대비 4%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월 공업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17.3% 하락했으며 금년 상반기의 공업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21.2% 하락했으며 1-4월은 전년 동기대비 27.9% 하락했고 1/4분기 공업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39.5% 하락했다. 이와 같은 수치의 변화는 중국 내 공업업계의 이윤이 금년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호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집계에 포함된 지역은 베이징, 내몽고, 호남성 등 22개 성급 행정구역의 공업이윤수치이며 조사대상 기업은 '규모이상 공업기업(전체 국유기업과 국유지분 우세기업, 연간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 비국유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 지역의 전체 공업업종 매출과 이윤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통계국의 집계결과 9월까지 중국 내 39개 공업업종 가운데 35개 업종의 이윤이 1-8월 대비 증가폭이 상승하였거나 하락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운수설비제조업, 통용설비제조업, 전용설비제조업 등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상승했으며 이중 화학섬유, 고무업종 등의 이윤 증가폭은 50%를 상회했고 건축자재업종의 이윤 증가폭은 20%를 상회했다. 하지만 석유채취업, 철강, 비철금속, 전자 등 업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적지 않은 하락폭을 보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담당자는 금년 4/4분기의 공업경제상황이 안정된 가운데 상승세가 강화되며 올해도 중국의 공업경제의 운영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 시장 포커스)

1. 10월 1일부터 신 국가기준 실행

- 10월 1일부터 맥주, 음료수, 올리브유와 관련된 3가지 국가 기준을 실행한다. 이중<맥주>와 <음료수>는 기존의 기준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이나 <올리브유>와 관련된 국가 기준은 처음으로 실행된다.
- 무알코올 맥주
 - 맥주와 관련된 신 기준은 <干啤酒(저당맥주)>, <低醇啤酒(알코올 농도가 낮은 맥주)> 및 <과일맥주>등 각종 맥주의 분류와 정의를 기재하였다.
 - * 예를 들면 알코올 농도가 0.5%vol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적을 경우, 맥아즙의 농도가 3.0°P보다 높은 맥주는 <무 알코올 맥주>로 정의함
 - 이에 유관 정부부서는 <무 알코올 맥주>라고 하지만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무 알코올 맥주>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과음,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 음료수 브로민산 함량 0.01mg로 제한
 - <음료수> 신국가기준의 특징은 기존 적용하던 미생물 총수량 20cfu/ml을 취소하고 브로민산 함량을 0.01mg로 제한하였으며 <천연광천수>는 반드시 수원지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유관관계자에 따르면 표지에 “보건, 의료 작용”등 기능성 음료라는 설명은 금하지만 국가유관 부서의 허가를 거친 자는 제외한다.
 - 또한 음료수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기준은 음료수1ℓ가 함유한 브로민산 함량을 0.01mg으로 제한, 미생물 총수량을 폐지하는 반면 3가지 미생물 기준치를 증가함으로 음료수에 대한 품질요구가 기존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3가지 미생물 : 분원성 연쇄상 구균(fecal streptococcus), 녹농균 (P.Aeruginosa), 원인균(cl.perfringens)

- 수입올리브 열매로 생산한 식용유는 올리브유가 아니다
- <올리브유, 수입올리브열매(油橄欖)로 제작한 올리브유>에 대해 국가기준을 세웠으며 올리브유에는 다음 3가지만 해당이 된다.
 1. "初榨(올리브를 과일상태에서 바로 짜낸 기름)",
 2. "精煉(1번과정을 거친 찌꺼기에서 걸러낸 기름)"
 3. "混合(2번에서 만들어 낸 기름에 1번 기름을 혼합)"
- 이 중에서 "初榨"올리브유는 고급, 중급으로 나누어지지만 수입올리브열매로 제작한 기름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올리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올리브유(수입올리브유)에는 기타 식용유나 비식용유를 첨가하면 안되며, "初榨"올리브유에는 첨가제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 국가기준에 처음으로 수입올리브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산 올리브유와 수입올리브에서 만들어낸 유지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이며 FOB 가격으로 중국산 올리브유는 60위안/Kg에 수입올리브유는 30위안/Kg이다.

자료 : 중국식품보(9. 30)

2. 음료업계의 중국식 점진적인 변화

- 중국에서 음료라면 "九龍齋"에서 판매하는 "酸梅湯"이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황실(皇室)"의 인정을 받은 음료다. 단 서방공업화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음료시장의 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통음료가 탄산음료로 대체되었으며 음료시장을 독점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 비록 90년대에 독점 형태는 음료수, 과일주스 등의 신제품 개발에 따라 음료시장의 구조는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시장 점유율은 탄산음료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많이 낮은 편이었다.

- 그러나 국가의 발전, 소비능력 제고에 따라 중국 음료시장 구조는 변화가 많았으며 "캉스푸"의 차 음료와 같은 중국식 음료는 탄산음료와의 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2008년 "王老吉"가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추월하여 중국 판매량 1위를 차지하였다. 단 음료업계 관련부서가 2009년 1월~5월까지 통계한 자료에 따르면 과즙음료와 채소음료의 생산량은 동기대비 24.07%, 15.89%의 증가세를 보여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음료시장은 천연음료, 기능음료의 발전 전망이 좋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와 동시에 코카콜라, Pepsi 등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중의학원"과 손잡고 중국식음료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Pepsi의 경우 2009년~2012년 사이 중국식 음료 개발에 1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료업계에 전환이 불가피한 현재 중국 전통문화를 토대로 중의약을 음료에 활용한 중국식 음료의 전환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한다.
 - 마케팅 산업화
 - * 현재 중국 음료업계를 분석하면 원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원료의 생산지가 브랜드의 신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최근 <農夫山泉>, <蒙牛>등 원료의 원산지를 찾기에 나섰으며 이는 원료의 안전을 기업의 발전과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 제품 브랜드화
 - * 중국의 음료시장은 크나 소비량은 제한되어 있다. 차 음료업계에서 <康師傅>, <統一>등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식 차 음료업계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원인은 <王老吉> 등 유명브랜드 외에 차 음료업계에 진출하려는 <Coca cola>, <Pepsi>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브랜드 사이의 경쟁을 통해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브랜드 국제화
 - * 브랜드 국제화라면 기준에 맞게 제품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단 일부 국내 브랜드의 경우 "1+1"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원인은 소매상, 생산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브랜드가 시장운영에 있어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완선이 보이지 않는다.

□ 발전방향

- 중국의 중의약 자원은 현재 충분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 일부 중, 소기업에 대한 기회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의 모 기업은 대추를 원료로 음료를 만들었으며 기능을 중요시한 제품이다. 단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과 경쟁을 하지 않았으며 대추의 기능을 마케팅 전략으로 여성을 상대로 Spa, 요식업 등 시장에만 공급하여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즉 시장에 대한 세분(細分)을 통해 개발한 제품만 중국 음료시장에서 발전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

- 탄산음료의 경우 식사 시에 마시면 배부른 단점이 있으나 운동 등 영역에서는 중국의 기타 음료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체 제품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출시하여야 만 자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다.

자료 : 중국식품보(9. 22)

3. 상하이 경제동향

- 2009년 1~8월 상하이의 수출입총액은 4,160.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6% 감소하였음.
- 이 중 수출액은 2,503.5억 달러로 동기대비 22.8%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1,656.8억 달러로 동기대비 22.4% 감소하였으며 846.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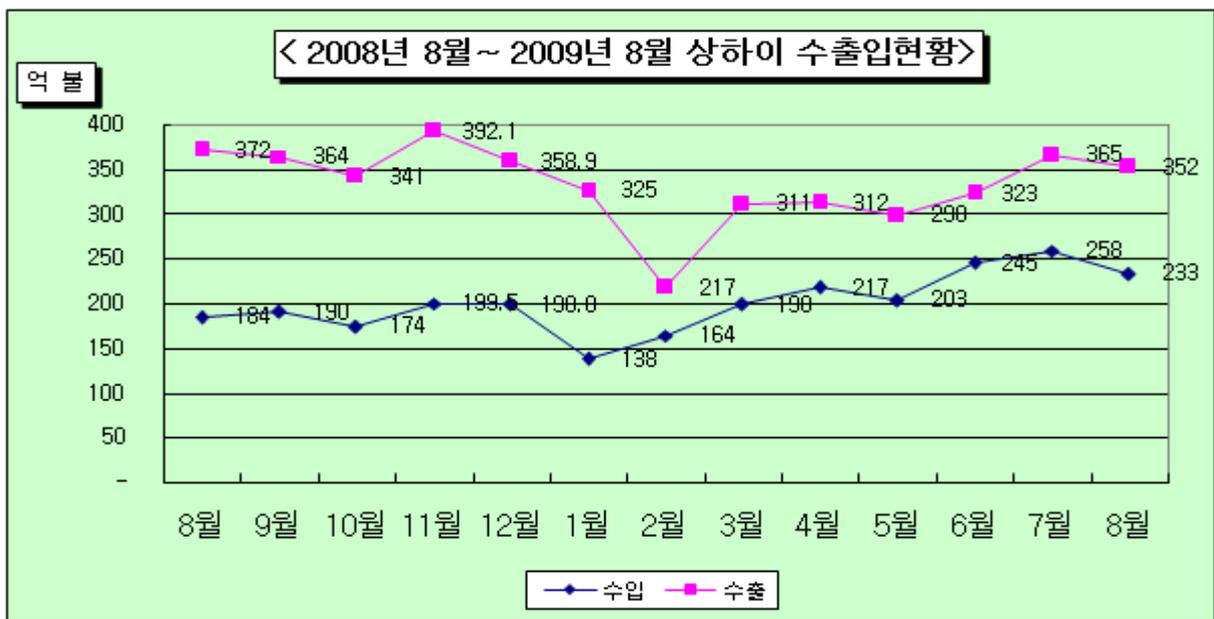
<2009년 8월 상하이 수출입현황>

(단위 : 억US\$)

구 분	'09. 8월		8월 누계	
	금 액	증감(%)	금 액	증감(%)
○ 수출입총액	585.0	5.2	4,160.2	△22.6
- 수출액	352.2	△5.2	2,503.5	△22.8
- 수입액	232.9	26.3	1,656.8	△22.4
무역수지	119.3	-	846.7	-

자료원 > 상하이

세관통계(<http://shanghai.customs.gov.cn/publish/portal27/tab8424/>)



해외시장동향	미 국
--------	--------

1. 현장 시장 포커스

□ 미국 10대 필수건강식품에 위험 도사려. 연구결과발표

초록야채, 토마토, 베리류 등은 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비타민함량이 높은 건강식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발병을 일으키는 FDA가 통제하는 10가지 해로운 식품이 1990년 이후 연방통계자료를 연구한 공익과학센터(CSPI: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의 조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0개의 해로운 식품은 초록야채, 달걀, 참치, 꿀, 감자, 치즈, 아이스크림, 토마토, 새싹채소, 베리류로 나타났다. 공익과학센터의 관계자인 새라클라인은 위 식품들은 미국인들이 거의 매일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먹는 식품이라고 밝히고 가장 부끄러운 것은 이들이 건강식품이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피하지 말아야 하는 식품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와 FDA는 식품이 가정이나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위 건강식품들은 시금치 대장균에서 참치의 히스타민균에 이르기까지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가장 놀랄만한 내용은 식당이나 급식소에 제공하는 감자의 40%이상이 감염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으며 매년 미국인 4명 중 1명은 식중독에 걸리며 5,000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발병과 관련해 리포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자 숫자는 사실상 더 많을 것으로 바이러스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www.makeourfoodsafes.org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 미국 FDA 식품영양정보 식품표시(labeling) 개정 검토

미국 FDA가 최근 식품업계의 과장된 건강식품 표기의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 초 식품포장용기 앞 부부분에 식품영양정보를 표기하는 표준안을 내놓겠다고 발표, 식품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마거렛 햄버그 FDA국장은 최근 제너럴밀즈, 켈로그, 콘아그라, 유닐레버와 같은 대형식품업체들이 스마트초이스프로그램(Smart Choice Program)을 자체적으로 도입해 포장용기 앞부분에 표기,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한 식품인 듯 보이지만 일부 당도가 높은 시리얼이나 유지방이 많은 마요네즈에도 표기를 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비건강식품임에도 자칫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거렛 국장은 스마트초이스프로그램이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만든 프로그램임을 믿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포장레이블링을 앞부분으로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임을 밝히고 미국내 전염병처럼 늘어나고 있는 비만환자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블링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내 Stop&Shop과 같은 매장에는 자체적인 건강랭킹시스템을 도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스마트프로그램이 대형식품업체들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단점을 들어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 방송사들과 언론사들이 이에 대한 소비자고발을 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 출시되는 많은 가공식품들이 "Heart healthy", "Good for you", "A better choice" 등과 같은 슬로건을 식품포장앞부분 즉 제품에 대한 기초설명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었다.

□ 뉴욕시민 매년 201만명 식원성 질병 감염

지난 5년 간 뉴욕시에서 식원성 질병(Food Borne Illness) 감염에 따른 식료품 리콜 건수가 93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어스턴 질리브랜드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은 19일 퀸즈 주민 57만 여명을 포함한 뉴욕키 201만명이 매년 식원성 질병에 감염되고 있어 식품의 박테리아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이후 뉴욕시에서 식원성 질병 유발 세균에 감염된 식품 리콜 건수는 퀸즈 211건을 포함 총 939건이다.

대표적인 퀸즈 지역 리콜 제품으로는 '터키가슴살'와 '피넛 편치', '말린 자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세균의 일종으로 고열과 마비 등을 가져오는 리스테리아와 박테리아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리콜이 많다는 것은 상한 제품이 상당수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식원성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검사와 공공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 현장시장 동향

□ 미국 포도알만한 키위 베리 출하시작

특이과일로 유명한 키위베리가 출하되기 시작했다. 키위베리는 포도알만한 사이즈로 겉껍질이 매끈하고 안에는 키위맛으로 껍질도 함께 먹을 수 있다. 키위베리는 미국 오레곤주에서 생산되는데 9월말에서 11월초까지 생산되므로 판매를 원하는 업체들은 조기에 주문을 해야 물량공급이 수월하다. 올해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PMA SHOW Fresh Summit에도 선을 보이는 키위베리는 현지에서 6온즈와 4.4온즈의 클램셸(clam shell) 사이즈로 공급된다.

키위베리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저지방에 콜레스테롤,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으며 섬유질, 비타민E,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네덜란드 파프리카 일시적으로 반입 금지

미국이 네덜란드 그린하우스에서 재배한 파프리카에서 입말이나방과(Tortricidae)에 속하는 False Codling Moth(학명:Thaumatotibia Leucotreta)이 발견되자 반입

을 금지시켰다.

나방은 네덜란드에서 오는 파프리카의 여러컨테이너에서 발견되었다고 미농무성 APHIS(동식물검역서비스)의 관계자인 제시카 밀티어는 밝히고 10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모든 네덜란드산 파프리카는 모두 반입을 금지시켰다.

미농무성이 입말이나방이 보통 아프리카에서 오는 농산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혼돈을 빚었다며 네덜란드 그린하우스 재배인 것처럼 레이블링을 거짓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파프리카반입금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말하기가 어렵다고 미농무성은 전했다.

□미국 동부 지역산 사과 품질 월등

동부지역(뉴욕주, 펜실베니아주)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품질이 지금까지 출하되었던 사과 중에 최고라고 할 정도로 월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동부지역 사과생산업체들은 품질은 좋으나 생산량이 많아 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했다.

뉴욕 Burt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Sun Orchard Fruit Co.사의 스티브 리즌씨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물량은 약 10%~15%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세계적인 온난화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과농사가 잘 된다면 사실 큰 부담은 없다고 할 정도로 시즌이 좋다고 설명했다.

펜실베니아주의 Rice Fruit Co.사의 경우 생산물량이 10%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품질도 이전에 없었던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9월과 10월 낮밤의 온도가 적절했기에 이 같은 결과가 있던 것으로 설명했다. Rice Fruit Co.사는 9월에는 가격이 하락했으나 10월이 되면 안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델몬트 개별포장바나나 세븐일레븐 편의점판매 개시

개별로 포장된 델몬트 브랜드 바나나가 테스트판매를 거쳐 본격적인 편의점판매에 들어갔다. 델몬트사에서 개발한 플라스틱포장필름은 바나나의 숙성과 표면 보호는 물론 셀브 보관기간이 5일까지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마케팅부사장인 데니스 크리스토씨는 설명했다.

싱글핑거바나나는 편의점 운영업체들에게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 바나나를 판매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확신, 친환경포장용기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내에 있는 세븐일레븐매장은 총 5800개로 공급채널을 늘리면서 매출상승은 물론 소비자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스낵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것이 델몬트사의 마케팅전략이다. 일명 Go바나나는 40파운드 벌크박스로 포장된다.

□ 캘리포니아 양상추 날씨변동으로 가격상승

캘리포니아 살리나스밸리에서 생산되는 양상추가 기후변화로 인해 잘 자라지 못해 농장들의 가격선정은 물론 무게가 덜 나가 품질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da Farm Fresh Foods사의 서부야채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Sammu Duda부사장은 지난 현재 살리나스 지역의 양상추생산이 지연되고 높은 강우량으로 인해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10월 26일 쯤에야 캘리포니아 Huron지역으로 생산지를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주전부터 양상추생산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농무성에 따르면 10월 13일 24개/박스의 양상추는 \$15.45~19.50에 거래되었으며 투명필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 24개/박스의 양상추는 \$16.45~20 그리고 30개들이 상자는 \$14~20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로메인상추의 경우 24개들이 박스가 \$9.50~14.50에 로메인 핫(Romane hot)은 \$12.50~16.35, 필름에 포장된 로메인 핫은 48개 들이가 \$13.50~17.35로 판매됐다. 그린상추는 24개들이 박스가

\$8.55~12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농장업체들은 수확기에 내린 비가 양상추의 품질이나 경작지개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 미국 가을고구마 가뭄날씨에도 높은 수확량 예상

미국 내 고구마생산지로 유명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은 지난 9월 중순이후 올해 고구마수확으로 한창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른 수확이지만 고구마 수확에 이미 들어갔으며 미농무성 농산물통계자료에 따르면 8월 24일 노스캐롤라이나산 고구마의 상태는 64%가 상급에서 최고급(good to excellent), 38%가 보통(fair), 1%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했다. 경작지는 지난해와 같으며 현재까지는 자라는 시기이므로 수확물량의 예상은 시기상조이지만 높은 수확량을 예상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표적인 농장은 Burch Farms, Wooten, Kornegay farms가 있으며 주품종은 주황색 고구마인 covingtons, beauregard, 그리고 흰고구마품종인 오헨리(o'henry)이며 일부 동양고구마도 생산하고 있다.

고구마가격은 거의 10년간 큰 변동이 없다고 생산업체는 전하며 40파운드 박스가 \$12~16에 거래, 보통 \$14~15이 되어야 생산업체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뉴욕타임즈 조미김을 스낵으로 소개

미국 뉴욕타임즈의 요리기고가인 마크 비트만이 동영상을 통해 조미김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과거에 파전을 소개하기도 했던 마크 비트만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김을 구워 감자칩처럼 먹는다고 설명을 했다. 또, 해초무침이나 스시김을 우리는 잘 알지만 김으로 스낵을 만들어 먹으면 칼로리도 적고 맛있는 스낵으로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조미김을 프라이팬에 굽는 것과는 달리 마크 비트만은 김에 우선 물로 브러시 혹은 스프레이를 한 뒤에 소금을 뿌린 뒤에 접어 1 x 3인치 크기로 피자 커터로 자른다. 후에 과자를 굽는 시트에 올린 뒤 250도의 온도의 오븐에서 15

분정도 굵게 되면 김은 바삭하면서 색상이 진해진다고 조리법을 설명 구운 뒤에 다시 참기름을 발라 먹는다고 조리법을 상세히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http://www.nytimes.com/2009/10/14/dining/14mini.html?em>

□ 모모푸쿠의 스타쉐프 데이빗장 요리책 출간

미국 요식업계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인2세 셰프인 데이빗장이 4개식당의 연이은 성공에 이어 이번에는 모모푸쿠 요리책을 오는 10월 27일 출간할 예정이라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해 보도했다. 권당 40달러, 303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요리책에는 고춧가루를 이용한 요리는 물론 돼지머리에 이르는 방대한 요리방법이 담겨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데이빗장이 1980년대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볼프강푹(Wolfgang Puck)에 버금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의 요리스타일은 동양과 미국이 맛에 프랑스 요리 테크닉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내에 인기있는 요리책은 푸드벵웬 스타로 잘 알려진 폴라딘, 지아다디로렌티스, 레이첼레이와 같은 요리사들이 발간한 책이어야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데 이번에는 단지 식당을 갖고 있는 요리사가 출간한 첫 책으로 기대가 아주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 미국내 책판매는 전반적으로 약 5%가 감소했으나 요리책은 이에 반해 1~2%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데이빗장의 이번 모모푸쿠 요리책이 많은 요식가들과 매니아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며 새로운 요리를 통해 모험을 즐기는 데이빗장의 인터뷰와 요리법을 동영상과 함께 전했다.

3. 미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09년 8월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천불)

구 분	2008년 8월	2009년 8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수출액	82,698,571	64,622,932	-21.86
○ 수입액	64,166,487	54,589,191	-14.93
□ 무역수지	18,532,084	10,033,741	-45.8

자료원: FAS. USDA

□ 주요 국가별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불)

		1	2	3	4	5
국가	미국 전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칠레	브라질
총수입액	54,589,191	12,913,410	8,143,695	3,386,717	2,031,693	1,953,438
전년 동기대비(%)	-14.93	-23.19	3.66	-16.76	-5.26	-12.02

자료원: BICO USDA

< 미국 수입 동향 분석(2009. 8월말 기준) >

- 2009. 8월까지 미국 농림축산물 총수입액은 545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4.93% 감소
 - 담배는 11.12%, 당류 25.09% 상승 : 설탕값 상승으로 인해 수입금액 상승
 - 쌀은 -4.04% 하락, 사료용 곡물 -35.12%하락
 - 신선과일은 7.2%상승, 신선채소는 -7.25% 하락, 주스류는 -33.23%하락,
 - 가공 과일 및 야채는 -4.85% 하락, 스낵류는 -4.85% 하락
 - 식물성 기름(열대성 유지제외) -29.27%감소, 종자류 0.73% 상승
- 주요 증가품목은 1차 코코아, 담배, 사탕수수, 사탕무 중간소비재는 당

류, 종자류 직접소비재는 신선과일, 인스턴트커피, 바나나로 달러화의 하락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분석됨.

-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제품군은 1차 농산물로 고무류, 밀, 사료 등으로 -19.65%의 하락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중간소비재인 산 동물, 열대유지, 식물성유지, 코코아페이스트로 -17.73%, 직접소비재는 주스류, 치즈, 향신료, 견과류, 종묘, 주류, 신선야채 등 -6.58%의 하락율을 보였음.

< 미국 수출동향 분석(2009. 8월말 기준) >

- 2009년 8월까지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출액은 6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4% 하락함.
 - 1차 농산물인 대두, 벌크농산물, 사료용 곡물, 밀, 면, 중간소비재인 대두박, 대두유, 동물성유지, 당류, 밀가루 그리고 최종소비재인 유제품, 청과, 견과류, 주류, 원예작물이 감소,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함.
 - 쌀, 담배, 식물성유지(대두유제외), 가금육, 시리얼, 스낵식품, 견과류, 가공육, 적색육류는 수출증가
 - 1차 농산물은 -33.58% 감소, 중간소비재는 -16.78% 감소, 최종소비재는 -8.84%로 각각 감소했으나 지난달에 비해선 점차 완화되고 있음.

□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천불)

2008년 8월		2009년 8월	
금액	전년 동기대비	금액	전년 동기대비
159,082	10.1%	148,708	-6.5%

자료원: FAS. USDA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2009. 8월말 기준) >

- 한국산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14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59백만 달러 대비 -6.5% 감소
 - 벌크농산물은 전년도 357만 달러에서 211만 달러로 -35.78%감소
 - 중간재농산물은 전년도 1,403만 달러에서 1,327만 달러로 -5.5%감소
 - 소비재 농산물은 전년도 137백만 달러에서 130백만 달러로 -5.5%감소
 - 임산물(펄프, 종이 제외)은 전년도 332만 달러에서 265만 달러로 -20.04% 하락

- 주요 증가품목은 쌀, 기타식물성유지, 신선야채, 견과류, 주류로 증가함. 밤, 뿌리인삼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415.96%, 53.25%로 늘어남.

- 주요 감소품목은 벌크농산물, 차류, 당류, 유제품, 인스턴트 커피류, 스낵류 제품이 감소함.

□ 미국의 주요 부류별/ 주요 4대 국가별 수입동향('09년 8월)

품목	국가	'07	'08	8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캐나다	225,076,557	24,862,378	1,758,658	12,913,410	-23.19
	멕시코	10,467,256	11,158,594	7,892,354	8,143,695	3.66
	중국	5,995,696	6,309,832	4,321,298	3,386,717	-16.76
	칠레	2,603,764	2,702,232	2,061,624	2,031,693	-5.26
	계	244,143,273	45,033,036	16,033,934	26,475,515	-10.38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캐나다	9,832,685	6,853,382	4,937,363	3,033,061	-38.57
	중국	3,079,675	2,855,687	1,919,886	1,493,261	-22.22
	브라질	1,153,238	812,890	592,829	369,586	-37.66
	칠레	766,787	653,618	443,759	337,292	-23.99
	계	14,832,386	11,175,577	7,893,838	5,233,199	-33.71
○ 벌크농산물전체	인도네시아	1,646,928	2,098,859	1,354,346	749,723	-44.27
	캐나다	1,589,402	2,824,077	2,014,753	1326,320	-34.17
	브라질	999,614	1,076,401	681,189	766,610	12.54
	태국	771,324	1,025,380	692,887	442,213	-36.18
	계	5,007,269	7,024,716	4,734,175	3,284,866	-30.61
- 사료용 곡물	캐나다	497,181	818,244	541,095	355,134	-34.37
	멕시코	23,839	10,909	7,874	6,910	-12.24
	핀란드	2,387	6,072	2,394	0	--
	페루	1,177	891	425	897	111.06
	계	524,584	836,116	551,788	362,940	-34.22
- 쌀	태국	222,427	341,227	249,826	243,446	-2.55
	인도	75,893	125,403	92,205	67,900	-26.36
	중국	44,089	24,570	23,878	3,474	-85.45
	파키스탄	15,432	30,464	22,971	14,473	-36.99
	계	357,842	521,664	388,881	329,294	-15.32
- 담배	브라질	284,140	304,062	246,679	236,755	-4.02
	터키	175,968	127,989	90,270	134,254	48.72
	아르헨티나	51,260	45,808	1,539	2,708	75.96
	말라위	39,243	22,263	10,458	35,097	235.6
	계	550,611	500,122	348,947	408,814	17.16
- 차(허브차 포함)	중국	79,546	88,777	57,653	50,345	-12.68
	캐나다	73,068	79,000	54,039	69,898	29.35
	독일	44,821	51,514	35,674	32,662	-8.44
	인도	40,892	51,045	29,866	30,090	0.75
	계	238,326	270,337	177,232	182,996	3.25
○ 중간재농산물 전체	캐나다	4,552,888	5,674,650	3,860,766	2,844,586	-26.32
	아일랜드	1,977,833	2,028,836	1,425,050	1,216,324	-14.65
	말레이시아	939,115	1,605,319	1,074,133	775,021	-27.85
	멕시코	875,286	997,961	610,484	730,904	19.73
	계	8,345,122	10,306,766	6,790,432	5,566,834	-20.14
- 식물성기름 (열대성유지제외)	캐나다	757,828	1,482,619	1,012,514	664,234	-34.40
	이탈리아	607,327	656,048	444,609	344,760	-22.46
	스페인	174,026	230,467	147,634	123,581	-16.29
	아르헨티나	82,928	101,597	74,324	34,041	-54.20
	계	1,622,108	2,470,732	1,679,082	1,166,615	-60.52
- 종자류	캐나다	183,924	196,455	132,614	129,535	-2.32
	칠레	152,387	166,333	161,716	189,675	17.29
	네덜란드	64,175	61,276	40,580	48,080	18.48
	아르헨티나	57,074	93,965	93,117	70,749	-24.02
	계	457,560	518,029	428,028	438,039	2.34

품목	국가	'07	'08	8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당류	캐나다	290,819	332,821	224,962	203,281	-9.64
	멕시코	150,369	395,575	245,949	347,496	41.29
	파테말라	51,211	79,264	30,141	47,826	58.67
	브라질	28,217	62,876	14,938	12,231	-18.12
	계	520,616	870,535	515,990	610,834	18.38
○ 소비제농축산물 전체	캐나다	9,101,581	9,510,269	6,245,776	5,709,443	-8.59
	멕시코	8,932,081	9,420,211	6,778,087	6,874,248	1.42
	호주	2,437,727	2,161,818	1,354,614	1,385,462	2.28
	이탈리아	2,338,422	2,463,789	1,656,581	1,364,803	-17.61
	계	22,809,811	23,556,087	16,035,058	15,333,957	-4.37
- 스낵류 (초콜릿포함)	캐나다	2,377,531	2,473,829	1,611,633	1,469,347	-8.83
	멕시코	840,642	898,457	578,601	661,367	14.3
	독일	199,825	202,760	102,468	98,917	-3.47
	중국	176,929	185,595	105,753	97,598	-7.71
	계	3,594,928	3,760,641	2,398,456	2,327,230	-2.97
- 낙농제품 (치즈제외)	뉴질랜드	629,511	655,310	386,952	399,989	3.37
	캐나다	154,717	106,308	79,385	58,796	-25.94
	호주	90,233	100,528	69,120	58,137	-15.89
	인도	88,154	108,940	78,141	21,148	-72.94
	계	962,615	971,086	613,598	538,070	-12.31
- 신선채소	멕시코	2,800,221	2,941,936	2,178,714	2,015,972	-7.47
	캐나다	830,310	925,197	635,380	582,215	-8.37
	페루	193,107	184,284	77,593	80,812	4.15
	중국	120,922	91,097	71,813	43,661	-39.20
	계	3,944,561	4,142,514	2,963,500	2,722,660	-8.13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멕시코	1,627,415	1,682,614	1,292,667	1,505,424	16.46
	칠레	1,155,712	1,245,289	1,046,655	1,035,697	-1.05
	코스타리카	423,262	424,558	303,113	307,693	1.51
	캐나다	137,186	150,591	70,425	62,211	-11.66
	계	3,343,575	3,503,052	2,712,861	2,911,025	7.30
- 과일채소가공품	캐나다	1,092,656	1,156,252	772,906	731,780	-5.32
	중국	718,098	813,457	564,781	502,438	-11.04
	멕시코	661,645	807,701	574,655	573,918	-0.13
	태국	331,824	382,008	262,671	256,695	-2.28
	계	2,804,224	3,159,418	2,175,014	2,064,832	-5.07
- 주스류	중국	437,510	676,928	553,411	262,475	-52.57
	브라질	419,464	302,071	186,768	135,900	-27.24
	멕시코	190,459	206,963	162,313	121,089	-25.40
	아르헨티나	179,181	214,670	133,240	103,491	-22.33
	계	1,226,615	1,400,631	1,035,732	622,954	-39.85
- 건과류	베트남	222,688	277,418	168,510	158,371	-6.02
	인도	204,863	242,629	174,359	120,797	-30.72
	브라질	167,039	132,524	103,310	108,381	4.91
	멕시코	153,870	176,253	104,405	89,184	-14.58
	계	748,459	828,824	550,583	476,733	-13.41
- 주류 (와인과맥주)	멕시코	1,594,612	1,568,452	1,118,891	1,095,772	-2.07
	프랑스	1,436,541	1,418,084	895,923	570,489	-36.32
	이탈리아	1,303,648	1,334,556	909,052	766,621	-15.67
	네덜란드	1,045,442	1,056,269	745,961	673,926	-9.66
	계	5,380,244	5,377,362	3,669,826	3,106,808	-15.34

품목	국가	'07	'08	8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원예작물/절화	콜롬비아	519,262	515,643	381,066	368,999	-3.17
	캐나다	303,410	270,639	174,031	156,646	-3.17
	네덜란드	258,223	236,984	144,630	114,972	-20.51
	에콰도르	145,549	134,309	97,942	88,503	-9.64
	계	1,226,444	1,157,575	797,668	729,120	-8.59
- 커피(구운것/ 인스턴트)	캐나다	116,041	131,155	82,429	107,390	30.28
	멕시코	87,754	96,919	63,929	65,591	2.60
	브라질	83,026	104,254	66,356	60,494	-8.83
	이탈리아	42,132	44,093	28,122	24,550	-12.70
	계	328,952	376,422	240,836	258,024	7.14
- 향신료	인도	143,077	179,440	126,312	87,785	-30.50
	인도네시아	91,523	130,525	93,021	60,308	-35.17
	중국	64,470	86,794	59,563	51,309	-13.86
	캐나다	54,122	94,496	59,768	56,753	-5.04
	계	353,191	491,255	338,665	256,155	-24.36
- 인삼(뿌리)	중국	13,443	9,601	8,458	2,915	-65.54
	대만	569	697	1,269	2,230	75.73
	홍콩	4,209	2,756	1,796	3,567	98.61
	캐나다	1,807	1,896	1,327	1,173	-11.61
	계	24,645	17,040	12,850	1,173	-11.61
(- 배)	아르헨티나	54,041	36,205	36,182	38,060	5.19
	한국	23,862	21,581	6,573	5,795	-11.84
	칠레	19,929	22,164	22,131	18,853	-14.81
	중국	18,200	12,333	7,641	6,064	-20.64
	계	116,032	92,283	72,527	68,771	-5.18
(- 감귤(만다린))	스페인	100,524	87,936	17,785	21,025	18.22
	모로코	14,416	26,116	9,309	12,355	32.72
	남아공	6,161	6,005	4,063	5,137	26.43
	페루	11,766	8,640	6,544	9,416	43.89
	계	129,685	126,403	37,701	21,025	18.22
(- 포도(신선))	칠레	640,237	679,137	630,731	632,165	0.23
	멕시코	262,049	224,769	223,498	284,098	27.11
	브라질	33,922	38,663	0	0	--
	페루	18,248	26,268	16,843	11,997	-28.77
	계	954,455	968,837	871,072	928,260	6.57
(- 딸기(신선))	멕시코	130,509	116,806	89,194	117,361	31.58
	캐나다	802	499	372	572	53.76
	중국	290	99	71	36	-49.30
	뉴질랜드	146	457	4	7	75.00
	계	131,746	117,862	89,640	117,976	31.61
(- 밤)	이탈리아	4,378	4,698	50	146	192
	중국	3,742	3,941	1,528	1,022	-33.12
	한국	1,467	957	94	485	415.96
	프랑스	144	140	56	30	-46.43
	계	9,731	9,735	1,727	1,682	-2.61

자료원) USDA BICO Report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2009. 8월말 기준) >

품목	'07	'08	8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238,816	253,880	159,082	148,708	-6.52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5,741	5,068	3,324	2,658	-20.04
○ 벌크농산물전체	6,602	5,851	3,754	2,411	-35.78
- 사료용 곡물	17	22	9	26	188.89
- 쌀	876	380	263	582	121.29
- 담배	360	95	0	0	--
- 차(허브차포함)	4,009	3,713	2,228	1,549	-30.48
○ 중간제농축산물 전체	15,755	20,815	14,037	13,270	-5.46
- 식물성기름(열대성유지제외)	1,272	1,786	1,130	1,216	7.61
- 종자류	1,810	1,413	879	342	-61.09
- 당류	741	1,091	746	335	-55.09
○ 소비제농축산물 전체	210,718	222,146	137,968	130,369	-5.51
- 스낵류 (초콜렛포함)	19,941	21,328	14,442	11,313	-21.67
- 낙농제품 (치즈제외)	7,993	9,723	7,919	6,165	-22.15
- 신선채소	6,265	7,769	4,767	5,467	14.68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24,944	23,253	7,175	5,905	-17.70
- 과일채소 가공품	17,959	18,496	11,840	12,162	2.72
- 주류(와인과맥주)	5,267	5,312	3,531	3,399	-3.74
- 원예작물/절화	2,087	2,378	2,004	733	-63.42
- 커피(구운 것/인스턴트)	2,537	3,794	2,618	2,321	-11.34
- 향신료	2,497	2,678	1,972	1,628	-17.44
- 주스류	2,039	2,097	1,498	1,625	8.48
- 견과류	1,517	1,007	130	716	450.77
- 밤	1,467	957	94	485	415.96
- 배	23,862	21,581	6,573	5,795	-11.84
- 포도	634	900	44	0	--
- 딸기(신선)	0	36	33	9	-72.73
- 인삼(뿌리)	569	697	338	518	53.25

자료원) USDA BICO Report

1. 현지 시장 포커스

(한식세계화 관련)

□ 뉴욕타임즈, '장모(Mother-in-Law)' 김치 소개

캘리포니아의 가든그로브에서 '장모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영자 사장의 레시피를 이용해 만든 MIL (Mother-in-Law, 장모)라는 브랜드의 김치가 처음으로 뉴욕마켓에 선보였다고 10월 14일자 뉴욕타임즈 푸드섹션에 소개되었다.

이 신문에는 장모 (Mother-in-Law)가 사위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해 감동시키는 한국전통이 있다면서 이 김치의 이름에 대해 설명했다.

붉은 빛깔의 MIL 김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깊은 맛이 나는 한국식 발효 피클이며, 애피타이저로 샌드위치나 버거의 속재료로 이용해 먹을 수 있으며 고기나 생선요리의 사이드디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한편 이 김치는 16온스 한 병에 \$5.99에 판매되고 있다.



□ CNN 한국특집방송 - 영부인과 한식홍보

대통령 영부인이 CNN과 인터뷰를 통해 한식홍보에 나섰다.

영부인은 CNN 월드 리포터인 Kristie Lu Stout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한식의 대표음식인 '잡채' 만드는 법을 직접 선보였으며 버섯과 양파를 능숙하게 썰어 스타우트 앵커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또한 영부인은 고등어를 곁들인 평소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즐기는 한식상을 공개했으며 한식이 세계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한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식이 뭐냐는 질문에 잡채와 빈대떡을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세계 각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잡채를 시식하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면서 잡채가 조만간 피자나 스시처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 인터뷰는 CNN이 19일에서 22일까지 연속으로 방영할 한국특집방송 'Eye on South Korea'의 첫 순서로 마련됐으며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zqh0LxnSZI0>

□ 美NBC, 인기방송 'Today'서 김치 만드는 법 소개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대표적인 아침방송인 NBC 'Today'는 오늘 (10월 27일) 방송분에서 김치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오늘 방송에서는 메인 앵커인 Matt Lauer가 뉴욕 맨해튼에서 모모푸쿠 누들바와 썸바 등을 운영하며 레스토랑계의 스타로 자리매김한 데이빗 장(한국명 장석호)과 함께 김치에 대한 설명과 만드는 방법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방영했다.

Lauer 앵커가 김치가 뭐냐고 묻는 말에 데이빗 장은 배추를 절여 발효시킨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국의 바베크처럼 지역마다 여러 종류의 다른 김치가 있으며 '새우젓' '고춧가루' 등의 재료를 한국말로 소개하기도 했다.

프로프램 마지막 부분에서는 데이빗 장이 미리 준비해온 김치를 맛본 Lauer 앵커는 조금 맵지만 아주 맛있다면 김치맛을 평가했다.

짧은 시간에 김치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느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았으나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아침 프로에 "김치"가 소개 되었으니 김치를 비롯한 한식이 미국인의 식탁에서도 사랑받는 빠른 시일 안에 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본다.

<http://video.msn.com/dw.aspx?mkt=en-us&from=truveo&vid=1a8b68cb-9169-469a-864b-50d0affdc405>

2. 주류시장 관련정보

□ 미국, 작년 소매점 14만3000곳 폐업, 2001년 이후 최고치

경기 침체를 겪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 소매 상점 14만3000곳이 문을 닫아 연간 기준으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코트라 실리콘밸리센터가 공개한 미국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리테일데일리' 등의 집계 결과 스타벅스나 사무용품·공구 체인점인 오피스디포 매장을 비롯해 다양한 품목의 소매점들이 지난해 이후 대거 폐쇄됐다.

스타벅스는 900개의 매장이 폐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피스디포는 북미 지역 점포 중 9% 가량을 폐쇄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쇼핑센터위원회(ICSC) 수석 경제학자인 마이클 니미라는 2009년에도 소매상 14만 곳 2010년 13만5000곳 등이 추가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들은 식품과 의류 등 소비 부문 전반에 걸쳐 보다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선호하거나 아예 구매를 포기하고 있고 구입하는 제품도 점차 소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리서치 기관인 '조그비 인터내셔널'이 미국인 4만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10명중 2명이 지난해 이후 소지품의 10% 이상을 버리고 난 뒤 새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우유나 파이 등을 구입할 때 구매 식품의 크기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며 진공 청소기의 용량도 낮아지고 있다.

□ WSJ, 경기침체로 미국인 건강 적신호

허리띠를 졸라맸더니 허리가 더 굽어졌다(?).

경기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미국민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미국 소비자가 팍팍해진 가계살림 탓에 웰빙 음식을 포기하고 패스트푸드와 캔·냉동식품 등 값싼, 그러나 지방과 칼로리로 가득찬 음식을 과거보다 더 많이 섭취하면서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인 테크노믹이 최근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200명 가운데 70%는 몸에 좋은 유기농 음식을 살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밥 골던 부사장은 "불행하게도 많은 소비자는 건강에 나쁜 줄 알면서도 저가 식품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에서 감자칩과 토르티야(멕시코산 옥수수빵) 칩 판매량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각각 22%, 18% 올랐다. 음식산업 조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버리에 간은 "과거에는 스낵이 간식이었지만 이제 주식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돈을 아끼려고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가정식'이라

해도 건강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음식을 조리할 때 전자레인지로 사용하는 비중이 2007년에는 20%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30%로 급등했고, 올해도 그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만큼 패스트푸드나 냉동식품을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다. 영양가 없는 음식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결과는 건강 적신호로 이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인데, 올 9월 기준으로 비만 인구 비중은 지난해 대비 1%포인트 오른 26.4%까지 치솟았다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밝혔다.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돈과 건강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와 관련해 WSJ는 ▷생각을 먼저하고 먹을 것 ▷쇼핑 전에 구매 목록을 기록할 것 ▷한꺼번에 대량 구입할 것 ▷많은 양을 요리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뒀다가 조금씩 꺼내 먹을 것 ▷점심을 싸갈 것 ▷청량음료 대신 물을 마실 것 등 돈을 아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6가지 생활의 지혜를 소개했다.

3. LA지역 관련정보(교포시장 중심)

□ 한인 구입 쌀은 대부분 중립미

한국인의 주식 밥. 그리고 밥을 짓는데 꼭 필요한 쌀. 이 쌀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한인 소비자들은 쌀 자체보다는 가격이나 브랜드를 보게 된다.

이러한 쌀은 재배지역에 따라 크게 캘리포니아산과 한국산으로 나눌 수 있다.

캘리포니아산 쌀은 새크라멘토에서 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산은 다시 단립미와 중립미 장립미로 나뉜다. 짧고 통통한 단립미는 주로 스시에 쓰이며 길고 홀쭉한 장립미는 중식 볶음밥으로 접하고 있다.

한인이 구입하는 쌀은 대부분 중립미다. 이 중립미는 생산방법 및 수확시기에

따라 다시 조생종(칼로스)과 만생종(M401)으로 나뉜다.

올 가을의 경우 9월에 조생종이 10월에 만생종이 출하됐다.

조생종에는 코리안팜 '이천쌀' 퍼시픽푸드 '청정쌀' 한미 '한가위 골드' 한성/퍼시픽사이언트 '싱싱미' 해태 '그린쌀' 'CJ천하일미' 등이 있다. 여기에 샘표 '동해물과 백두산이'와 풀무원 '참 좋은 쌀'이 올 가을 가세했다. 일본 브랜드로는 '시라기꾸'가 대표적.

조생종 20파운드짜리 1포의 가격은 14.99~16.99달러선. 마켓들의 빠지지 않는 세일품목으로 8.99~10.99달러에 할인판매되고 있다.

만생종에는 '가을보석' '대풍쌀' '청정쌀 골드' '한국미' '한미쌀' 'CJ햇살' 등이 속한다. 가격은 조생종보다 비싸 1포에 22.99~26.99달러에 형성돼 있다. 세일가격 역시 최저 16.99달러 정도.

최근 2~3년 사이 처음 보는 브랜드도 많아졌다. 이는 한국산 쌀. 이전에는 한국산 쌀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2007년 6월 '철새도래지쌀'을 시작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한국산 쌀이 수입되고 있다. 한국산 쌀은 거의 단립미로 수입 초기에는 가격이 걸림돌이었지만 최근에는 용량 및 포장을 현지에 맞춰 15~20파운드 1포에 15.99달러까지 떨어졌다.

□ 식품업계, '무지개 마케팅(color marketing)'에 주력

식품업계가 '무지개 마케팅(color marketing)'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 컬러리서치연구소 ICR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첫 90초 안에 상품 선택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을 하며 이 결정의 60~90%는 컬러에 의해 좌우된다. 컬러마케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컬러마케팅이란 색상의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시키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과거에는 색채심리학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 컬러가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알려지며 식품업계로 까지 범위가 넓혀져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CJ는 빨간색을 메인 컬러로 정했다. 빨간색은 식욕을 돋우는 색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컬러이기도 하다. CJ는 지난 1996년 한국 최초의 즉석밥 '햇반'의 패키지를 빨간색으로 정해 히트했으며 지난해 출시한 인텔리커리, 사천짜장, 칠리새우덮밥소스 등 대부분 레토르트 제품의 패키지도 빨간색으로 사용해 화제가 됐다. CJ는 제품의 통일성을 위해 전략 제품에는 빨간색 패키지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을 레드존이라고 부르고 있다.

노란색은 오뚜기의 색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오뚜기의 밝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노란색 카레로 상징되는 오뚜기는 카레, 즉석국, 즉석밥, 당면, 라면, 소스류 등 전제품의 패키지와 지면광고, TV 광고에 노란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이트 맥주 맥스도 노란색으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맥주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황금색을 활용해 프리미엄의 이미지와 보리와 호프, 몰로만 만든 몰트 비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풀무원은 친환경 바른 먹거리를 지향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초록색을 활용한다. 풀무원은 두부와 콩나물 등 주요 냉장제품들에 초록색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다.

동원F&B는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원색을 과격적으로 도입했다. 동원의 대표 음료 차애인은 빨간색 겨울애 다즐링 홍차, 노란색 시월애 국화차, 초록색 사월애 보성녹차, 파란색 사랑애 자스민 녹차 등 4가지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브랜드가 채택하고 있는 메인 컬러 외에도 컬러풀한 패키지로 변신을 꾀한 식품들도 늘고 있다. 패키지의 디자인이나 컬러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고추장, 된장, 간장, 식초, 물엿 등도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컬러풀한 패키지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LA 한인타운, '타 인종 입맛 잡아야 산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한식당 업계가 전반적인 매상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며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존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불황을 느끼지는 않는 이 한식당들의 공통점은 바로 주 고객층이 타인종이라는 사실이다.

타 인종들에게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바베큐전문 한식레스토랑으로 소문난 조선갈비는 타인종과 한인 고객의 비율이 8대 2에 정도라는 게 업소 측의 말이다. 가격변동과 분위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한인 고객들과 달리 타 인종 고객들은 꾸준히 방문, 매상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조선갈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서구식 리셉션 홀과 넓고 모던한 실내장식과 개량한복 차림의 웨이트리스 등 차별화된 분위기가 타 인종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평이다. LA 한인타운 6가와 켄모어 지역의 한일관도 타 인종 고객이 꾸준히 증가, 불황을 모르는 식당 중 하나로 꼽힌다. 한일관은 한국 음식의 맛에 깊게 심취한 마니아층이 많이 찾는다. 이들은 매운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을 한인 이상으로 자주 주문하고 있다. 매주 1~2회 한일관을 찾는다는 미국인 케빈 유자씨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너무 강한 맛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한번 맛들이니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라며 친구들에게도 한국 음식을 자주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일관은 레스토랑 품평으로 잘 알려진 유명 웹사이트 옐프(Yelp)에도 코리아타운의 맛집 중 하나로 올라 있다.

6가와 세라노에 위치한 해장촌 돌구이는 LA타임스에 소개될 정도로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은 한식당이다. 특히 무제한 고기구이메뉴의 인기가 높다. 해장촌 돌

구이의 데이빗 정 매니저는 "평소 타 인종 손님의 비율이 항상 50%를 넘었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온다"라며 "오픈할 때부터 주 고객층을 주류사회로 삼아 마케팅에 주력한 것이 결실을 보고 있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만나, 무대포, 숯불집, 다호갈비, 함지박, 베버리순두부, 북창동 순두부, 고바우, 웨스턴 도마칼국수, 진주갈비, 대왕갈비 등이 50% 안팎의 타 인종고객 비율을 유지하며 불경기 속에서 안정된 영업을 하고 있다.

타 인종 고객들을 주 고객층으로 공략하는 것은 한국 음식을 주류사회에 알리는 역할 뿐 아니라 과열 경쟁으로 고통 받는 요식업계에 시장 확대를 통한 불황탈출의 방책이 될 수 있다. 이들 업소들의 마케팅 및 고객관리 실태는 한인고객만은 기다리는 요식업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1. 현지 시장 포커스

가. EU 중국과의 신선 농산물 수출입 불균형 타개에 부심

EU의 중국으로부터 신선 농산물 수입은 2003년 476,000톤에서 2008년 750,000톤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중국의 EU산 신선농산물 수입물량은 2003년 7,900톤에서 2008년 15,000톤으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입 역조 규모가 아주 큰 실정인데, 유럽의 신선 농산물 생산업자 기구인 Freshfel Europe는 EU 교역 감당 커미셔너의 중국 방문일정관련, 현재의 EU.중국 간의 신선 농산물 교역 역조심화 사태가 중국 정부의 상호주의원칙 미 준수에 따른 것임을 지적 EU집행위원회에 중국과의 협상통한 돌파구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WTO)가입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 개방 조치가 미흡했음은 무역역조 수치 자체가 입증하고 있고, 더구나 중국 시장에서 유럽산 신선 농산물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EU 신선 농산물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긴급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Freshfel Europe은 강조했다.

현재까지 EU회원국가 들 중의 일부 국가만이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중국에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식물 보건 협정을 체결했다. 식물 보건 협정 체결 품목은 프랑스 사과 류, 이태리 키위, 스페인 오렌지 및 감귤류이고, 이외에 프랑스 키위, 벨기에 배 및 네덜란드 배가 중국과의 식물 보건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유럽의 신선 농산물 생산업자 기구인 Freshfel Europe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 무역 주의정책에 따라, 식물 보건 협정이 체결되어도 신선 농산물의 중국 시장 수출 허용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중국의 수입 허가가 나고, 수출이 될 때까지는 제반 협상으로 많은 시간, 노력을 소비해야하므로 EU 신선 농산물 수출 국가들에겐 기회 비용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코스트가 드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 Source:Freshfel(2009.9월)

나. 동구 유럽시장 유기농 식품 붐, 유기농 식음료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확대 추세

동구 유럽 사람들이 서방을 상징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불과 20여 년 전 동구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었을 때이나, 최근 동구 유럽인들은 유기농 식품을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다.

런던 소재 컨설팅 회사인<오가닉 모니터> 조사. 분석 팀은 소련치하에 있었던 동구 유럽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유기농 식품이 팔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루마니아 수도엔 Biofood. Bio Revolution라는 유기농 전문 매장이 최근에 오픈되었고, 헝가리에는 유기농 식품 시장들이 전국에 걸쳐 매주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폴란드에서도 유기농 식품 코너가 거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운영되고 있고,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엔 불가리아 최초의 유기농 전문점이 2008년에 들어섰었는데 계속 점포가 확대중인데, 영향력 있는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대주교는 무 농약 식품만 먹기로 했다고 선포했다.

런던 루마니아의 신문들이 유기농업 및 건강식품에 대한 지면이 계속 증면하고 있고, 최대 일간지< Aevarul>은 친환경 및 유기농 식품에 대한 기사로만 해당 지면 전체를 할애한 “그린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인데, 런던 소재 컨설팅 회사 <오가닉 모니터>조사. 분석 팀은 동유럽 소비자 들이 식품 제조 및 공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면서부터 보다 고품질의 식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유럽 유기농 식. 음료 시장의 규모는 2007년 기준 6천만 유로 규모로 서구유럽의 유기농 식. 음료 시장 규모 200억 유로에 비해 아주 작으나, 현재와 같은 엄청난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대하고 있다.

* Source: organic monitor 등(2009.9월)

다. EU 식품 및 사료용 콩, 옥수수 부족 사태 발생 가능성 및 유전자 변형 작물 허용 금지 정책에 따른 EU식품산업 전체 위기 경보

EU집행위원회는 남미에서의 콩, 옥수수 등 작물의 흉작으로 인해 EU가 식품 및 사료용 콩, 옥수수 부족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덴마크 농. 식품. 수산부장관은 EU장관 협의에서 EU집행위원회는 EU가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해서는 100% 수입 금지시키는 소위 <제로 토로런스(Zero Tolerance)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긴급 해결해야 하고, EU 집행위원회와 EU장관 협의도 새로운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를 조기 승인이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제로 토로런스(Zero Tolerance) 정책>을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 EU가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기 물질을 아주 극미량 함유한 식품 생산용 비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컨테이너들마저 수출지 선적항으로 되돌려 보내져, EU식품산업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태가 최근에 발생 하고 있다. 해당 컨테이너에는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EU 비승인 유전자 변형 물질이 0.1%도 안 되게 발견되었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유전변형 물질들은 돌려보내진 비유전자 변형 작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컨테이너에 전에 실렸던 화물로부터 옮겨진 것이다.

덴마크 농. 식품 장관은 EU의 유전자 변형 유기체 <제로 토로런스(Zero Tolerance) 정책>의 엄격한 적용은 식품 생산 및 공급 등 식품 생산업계에서소비자에 이르기까지 EU의 전체 식품공급 체인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어, EU차원의 조속한 정책 조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 Source:greenbio.checkbiotech(2009.9월)

라. 영국 소비자들, 불황에도 식품구매 신도붙이

영국의 대형 식품유통 슈퍼마켓에서의 영국 내에서 자체 생산된 신선 농산물 등 식품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 2009년에도 2자리 숫자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황 속에서도 자국 생산 농산물 등 식품을 구매하는 신토불이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자국 산 식품 값이 일부 비싸도 자국산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Mintel에 따르면 영국의 대형 식품유통 슈퍼마켓들이 구매한 자국 생산 식품의 매출은 2008년 47억 파운드에서 2013년엔 62억 파운드로 3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 수치는 이기관이 2008년에 극심한 불황에 진입하기 직전 추정된 성장률 35%에 비해 조금만 떨어진 전망치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초대형 고급 식품 유통 체인인 웨이트로스(Waitrose)의 국내 구매 책임자는 불황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바꾸게 하는데, 어떤 소비자 군은 국내산 농산물이나 식품이 통상 비싸기 때문에 보다 싼 식품으로 눈을 돌려 국내산 농산물이나 식품 매출이 줄게 하고, 다른 소비자 군은 소속된 지역 사회나 국내 농가 및 식품 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산 농산물이나 식품을 더 구매하여, 이 매출이 늘게 만든다고 밝혔다.

영국최대의 식품유통 Tesco의 국내 식품 구매 담당 책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구매 식품의 원산지를 아주 꼼꼼하게 챙긴다고 설명했다. 영국 대형 식품유통들은 그동안 지역별로 위치한 국내 식품구매 센터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소형 식품제조업체들을 개발, 국내산 농산물 및 식품 조달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불황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식품 부문 중 매출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생산 식품 부문은, 영국의 대형 식품 유통들이 매출 드라이브를 더 걸 수 있는 부문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Mintel은 분석했다.

* Source:Mintel 등 (2009.10월)

마. 유럽 신선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함유량 최고

유럽 잔류농약 규제 위원회가 최근 4천여 과일 및 채소 샘플을 수거, 검사를 실시했는데, 상당수의 신선 농산물이 법적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의 농약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함유 수준은 품목별로 차이가 많았는데, 수입산 신선과일, 채소

가 잔류 농약 함유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 콩. 고구마. 토마토. 포도. 배추. 오이. 멜론. 오렌지. 시금치. 감자. 배 등이 법적 잔류농약 허용치 보다 잔류농약 함유량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형태로 공급되는 사과나 바나나가 어떤 형태로든 잔류 농약을 함유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른보다 잔류농약의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으나, 유럽 식품 안전청(FSA)은 법적 허용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잔류농약을 함유했다는 것이 해당 식품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이거나 위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유럽 잔류농약 위원회(European Pesticides Residues Committee)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병원균이나 잔류농약 등을 크고 적든 어떤 형태로든 섭취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소비자들이 식품의 잔류농약관련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하루에 5조각이상의 신선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 및 그에 따른 건강 강화 이점이 잔류농약에 따른 위험보다는 훨씬 크다고 신선 과일. 채소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선 농산물에 어느 정도의 잔류농약이 포함되어 있느냐 보다는 인체의 자정기능을 거친 후에도 안전히 순화되지 못하고 남는 잔류 농약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인체에 축적되어 나타날 위험이 더 문제이므로, 농약에 유독성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인체 내 해독 방안 등을 비화학적으로 찾아내는 쪽으로도 자원투입과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 Source:FSA 등(2009.9월)

바. 이태리 과일 수출 사상 최초 무역 역조로 위기

유럽최대의 과일 생산국인 이태리가 과일 수출 물량이 수입보다 적은 과일 수출 역조현상을 사상 최초로 맞고 있는 것으로 2009년 10월초 이태리 쎬세나에서 열린 26회European Fruit Summit에서 밝혀졌다.

이 학회에서는 딸기, 복숭아등 여름과일 부문과 사과, 배, 키위, 감귤류 등 겨울 생산에 대한 분석이 각각 이루어졌는데, 전 세계 과일 생산은 2000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유럽 과일 생산은 계속 감소세로 2000년 6천만 톤에서 올해엔 6천만 톤 미만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럽 27개국 과일 생산은 이태리가 선두를 지켜 유럽 전 과일 생산의 30%를, 그 다음으로 스페인이 25%, 프랑스가 16%, 그리스가 6%를 각각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리 여름 과일 농업 부문은 생산 농가의 출하가격이 50%나 떨어져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과일의 과잉공급, 적당한 보관 설비부족, 여름 과일의 급속한 상품 의 변질, 주스 산업의 과일 수요 급락,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시장 수출 물량 격감 등이 이 같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 이태리 과일 수출은 1,608,883톤(전년 동기대비 11%감소). 과일 수입은 1,846,910톤(전년 동기대비 14.1%증가)으로 이태리 역사상 처음으로 과일 수출입이 역조 현상을 시현, 이태리 과일 산업이 맞고 있는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태리의 2009년 상반기 전체 과일, 채소 농산물 수출은 15억 유로로 2008년의 17억 유로 대비 감소했으나, 수입은 14억 유로로 전년 동기의 12억 유로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태리의 감귤류 수출은 2009년 상반기 수출 물량이 94,247톤으로 전년대비 50% 나 격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 Source:European Fruit Summit(2009.10월)

2. EU(27개국)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EU 역외)

□ 수출

품 목	2008년	'08.6월	'09.6월	
	금액(백만유로)	금액(백만유로)	금액(백만유로)	증가율(%)
전체	68,332	32,113	29,336	△8.6
육류 및 육류제품	5,384	2,510	2,279	△9.2
동물(生)	1,104	431	485	12.5
유제품 등	6,747	3,442	2,665	△22.6
어류, 갑각류	2,757	1,300	1,204	△7.4
곡류 및 곡류제품	9,980	4,292	4,328	0.8
채소·과실류	7,947	3,976	3,649	△8.2
당류(설탕, 꿀)	1,475	688	616	△10.5
커피류, 차류, 향류	4,275	1,850	1,814	△1.9
사료	2,437	1,086	1,214	11.8
기타 식재료	6,784	-	3,252	-
음료류	16,754	7,880	6,753	△14.3
담배	2,688	1,316	1,077	△18.2

□ 수입

품 목	2008년	'08.6월	'09.6월	
	금액(백만유로)	금액(백만유로)	금액(백만유로)	증가율(%)
전체	80,209	39,438	36,688	△7.0
육류 및 육류제품	5,195	2,616	2,607	△0.3
동물(生)	344	163	135	17.2
유제품 등	744	398	290	△27.1
어류, 갑각류	16,085	7,555	7,236	△4.2
곡류 및 곡류제품	6,346	3,789	1,773	△46.8
채소·과실류	20,702	10,051	10,392	4.4
당류(설탕, 꿀)	2,361	1,107	1,044	△5.7
커피류, 차류, 향류	11,110	5,274	5,597	△6.1
사료	8,732	4,367	4,004	△8.3
기타 식재료	2,305	-	1,262	-
음료류	4,398	2,075	1,989	△4.1
담배	1,876	878	284	△67.7

* 자료출처 : Eurostat

□ EU 농식품 수출입 현황 분석

- '09.6월 현재 전체 산업 수출의 3.8%에 해당하는 29,336백만유로 수출
 - 주 수출품목 : 곡류제품, 채소·과실류, 음료류, 식재료, 유제품, 육류 등
 - 주 수출국가: 미국(4,238백만유로), OPEC(3,959), CIS(3,719),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1,267), 일본(1,108) 등
 - 수출주력품목인 곡류 조제품이 전년 대비 1.6% 감소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제품의 수출은 2,665백만유로로 전년 대비 23.6%의 감소세를 보임
 - 식료품만이 1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09.6월 현재 전체 산업 수입의 6.3%에 해당하는 36,688백만유로 수입
 - 주 수입품목 : 채소·과실류, 수산물, 커피류, 사료, 육류, 음료류 등
 - 주 수입국가 : 남아프리카(10,781), 미국(2,184만유로), 중국(1,649),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1,473), 노르웨이(1,346) 등
 - 커피류, 식재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류가 전년 대비 수입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내에서도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낙농제품의 경우 27.6%에 달함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담배 수입이 전년 대비 68.1% 감소

* EU의 식음료 교역규모는 '07년 기준 세계 교역규모 7조1천억유로 중 최대로 전년대비 6.9% 신장된 1억2천만유로에 달함(출처 : eurostat)

□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

- '09.8월 대EU 수출은 수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식품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년대비 2.0% 증가한 118백만불
 - 수출실적 : ('07) 162 → ('08) 189 / ('08.8) 115.2 → ('09.8) 117.5
 - 농산물 : 49.4백만불 → 전년대비 9.7% 감소
 - 축산물 : 2.0백만불 → 전년대비 13.0% 감소
 - 임산물 : 3.0백만불 → 전년대비 36.2% 감소
 - 수산물 : 63.1백만불 → 전년대비 18.1% 증가

- '09.8월 대EU 국가별 수출은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이 수출 감소세를 보였으나,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수출이 늘어 성장세 유지
 - 스페인 29백만불(23.5% ↑), 프랑스 13.7(23.0 ↑), 영국 10.9(38.2 ↑), 네덜 13.3(42.3 ↓)
 - 스페인은 참치류 등 수산물 수출이 23%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며, 네덜란드는 버섯류와 기타 화훼류, 채소주스의 감소로 하락세를 보임

3. EU 경제 동향

□ 유럽 경제동향

- 한·EU FTA 협정문에 양측 간 가서명으로 최종 문안 확정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0.15(목) 오후 5시 30분(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 협정문 문안을 최종 확정
 - 양 통상장관은 향후 번역작업 및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내년 1/4분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2010년 중에는 협정을 발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함
- EU 27개국 재무장관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는 '출구전략' 원칙에 합의하고, 경기부양책을 2011년부터 종료하기로 함
 - 재무장관들은 현 시점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철회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표명하고 늦어도 2011년, 개별 회원국 사정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는 등 출구전략 원칙에 합의

□ EU 농업 분야 동향

- 중국과의 신선 농산물 수출입 불균형이 심각하여 수출입 역조규모 확대
 - EU의 중국산 수입물량은 '03년 476천톤에서 '08년 750천톤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중국의 EU산 수입물량은 7.9천톤에서 15천톤으로 미미한 증가세
 - 유럽의 신선농산물 생산업체 기구인 Freshfel Europe는 현재의 EU·중국 간 신선 농산물 교역 역조심화 사태가 중국 정부의 상호주의원칙 미 준수에

따른 것임을 지적 EU집행위원회에 중국과의 협상 통한 돌파구 마련을 촉구

- 식음료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동구 유럽시장의 유기농 시장은 확대 추세
 - 런던 소재 컨설팅 회사인<오가닉 모니터> 조사팀은 동구 유럽 지역에서 유기농 식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힘
 - 루마니아 수도엔 Biofood. Bio Revolution라는 유기농 전문 매장이 최근에 오픈되었고, 헝가리에는 유기농 식품 시장들이 전국에 걸쳐 매주 정기적으로 개설, 폴란드에서도 유기농 식품 코너가 거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운영됨
 - 동유럽 유기농 식음료 시장의 규모는 2007년 기준 6천만 유로 규모로 서구 유럽의 유기농 식음료 시장 규모 200억 유로에 비해 아주 작으나, 현재와 같은 엄청난 불황 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대하고 있음

- 네덜란드 그리너리(The Greenery) 구조혁신, 수수료 대폭인하로 회원 생산 농가와 더불어 불황 타개
 - 회원 생산 농가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제반구조를 혁신, 국내 구매 부문(Sourcing-NL)의 비용을 15%를 절감하여 2010년부터 훨씬 낮은 수수료 (tariff & levy)를 부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확보 전망
 - 그리너리(The Greenery)는 생산자 조합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작업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수수료시스템 도입은 그 중 하나임

- 세계 식량 가격 2050년까지 3배 폭등 전망
 - 국제 식품 정책 연구원(IFPR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해 식품가격이 2050년까지 3배로 오를 것으로 전망
 - 식량가격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밀 값은 40%, 쌀과 옥수수가격은 60%까지 각각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 발표

<참고>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7	2008	2009P	2010P
GDP 증가율	2.9	0.9	-4.0	-0.1
민간소비 증가율	2.2	0.9	-1.5	-0.4
정부지출	1.9	2.2	1.9	1.7
총투자 증가율	5.4	0.1	-10.5	-2.9
실업률	7.1	7.0	9.4	10.9
인플레이션	2.4	3.7	0.9	1.3
인구수	493	495	498(P)	500(P)
환율 (7.21 매매기준율)	1,206.91	1,263.85	1,603.25	1,778.13

*Source : TradingEconomics, EU집행위 중기 전망